

한국여성학회 2016년 제1차 학술포럼

역사쓰기와 여성정치

주최 및 주관 :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일시 : 2016년 4월 8일(금) 14:00~18:00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순서

[등록] 14:00-14:30

[개회식] 14:30-14:45

인사말 : 오정화(한국여성학회 회장, 이화여자대학교)

임혜란(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소장)

[발제] 14:45-16:30

사회 : 조선정(서울대학교)

발표 :

1. 근대사연구를 통해서 본 기억의 정치학과 여성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2. 역사를 이해하는 여성주의적 방식에 대하여 :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배은경(서울대학교)

3. 90년대 기억 상품의 포스트 페미니즘 정치학 : tvN <응답하라> 시리즈를 중심으로

김현경(광운대학교)

[패널토론] 16:30-17:20

토론 :

박정애(동국대학교)

이나영(중앙대학교)

황정미(고려대학교)

[종합토론] 17:20-18:00

[저녁식사] 18:00

목차

[발표문]

근대사연구를 통해서 본 기억의 정치학과 여성 / 김정인

1

역사를 이해하는 여성주의적 방식에 대하여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 배은경

19

90년대 기억 상품의 포스트 페미니즘 정치학 :
tvN <응답하라> 시리즈를 중심으로 / 김현경

34

발표문

근대사연구를 통해서 본 기억의 정치학과 여성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1. ‘대중적’ 공헌사와 ‘전문적’ 젠더사의 동시대적 공존

서양의 여성사 연구는 두 번의 전환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까지 여성사 연구는 역사 속 여성 명사들에 주목했다. 훌륭한 가문 출신으로 귀감이 되는 여성이나 정치와 종교 지도자로 활약했던 여성들이 연구 대상이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모든 여성이 떠받들 수 있는 모범과 전형의 모델을 찾는 연구는 결국 남성적 시각에서 칭찬받을 만한 여성의 업적을 복원함으로써 기존 역사를 보충하는 데 그쳤다. 이런

면에서 여성 명사에 주목하던 단계의 여성사를 보완의 역사라 부르기도 한다.

보완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여성사 연구는 공헌사에 집중했다. 노예폐지운동, 참정권운동, 노동운동 등의 다양한 역사 발전 과정에서 여성이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연구했다. 공헌사는 여성의 삶 자체보다는 그것이 운동에 미친 효과에 주목했다. 또한 공헌에 대한 평가는 남성적 기준을 따랐다. 공헌사 단계에서는 여성권리를 위한 투쟁도 다루어졌다. 여성을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제약받은 존재로 파악하며 여권 획득 운동, 여성 참정권 확보 운동 등과 여성운동 지도자들을 연구했다.

여성사 연구의 두 번째 전환기는 젠더사의 탄생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보완사와 공헌사를 통칭하여 ‘여성사’로 부르며 여성사에서 젠더사로 전환하였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젠더사는 여성의 주체적 역할에 주목했다. 기존 역사학이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섹슈얼리티, 출산, 자녀양육 등을 비롯한 사생활과 일상생활의 미세한 부분까지 작동되는 권력의 실체를 분석했다. 주부, 어린이, 출산자와 양육자, 성적 파트너, 여가동료, 임금노동자, 시민으로서의 역할 등도 연구했다. 오늘날 서양에서 젠더사는 여성사의 범주를 넘어 이론과 방법론에서 역사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동하는 새로운 역사학으로 자리하고 있다.

서양 여성사 연구의 추이를 준거로 한국 여성사 연구를 살펴보면, 서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완사, 공헌사, 젠더사의 단계를 거쳤으며, 아직은 공헌사 연구가 우세한 가운데 젠더사 연구가 차츰 확산되는 중에 있다. 근대 여성사 연구에서는 대중이 여성 독립운동가에 주목하는 ‘회고적’ 추세에 힘입어 공헌사 연구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역사 대중화의 방향은 공헌사의 입지가 더욱 굳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반면 역사 전문가, 특히 소장 여성 역사학자들은 여성의 삶을 주체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젠더사 연구에 힘쓰고 있다.

오늘날 여성사 연구의 처지와 앞으로의 향배는 ‘대중적’ 공헌사와 ‘전문적’ 젠더사의 공존 양상을 제대로 파악할 때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사 연구를 근대사 연구 동향과 맞물려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여성사 ‘밖’에서 근대사 전공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여성’ 역사가로서 경험했던 여성사 연구의 궤적을 공헌사와 젠더사라는 잣대로 살피는 자기성찰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 근대 여성사 연구가 젠더사로서 역사학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여 ‘새로운 역사학’을 개척하는 데 일조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빌려 ‘한 여성 역사학자의 죽음’을 되짚으며 연구는 진화하고 있으나 연구 환경, 즉 삶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돌아보고자 한다.

2. 여성사 ‘밖’에서 경험한 근대 여성사 연구

여성사 연구의 ‘밖’에서 근대사 전공자로서 처음 쓴 여성사 논문은 ‘동학. 동학농민전쟁과 여성’이었다. 2002년에 동학과 천도교를 전공하는 여성 역사학자라는 이유로 청탁받아 쓴 글이었다. 이 글은 ‘동학과 동학농민전쟁에서 제기된 여성관. 여성문제를 조선후기 이래 한말까지 사회경제적 변동이 가져 온 해체기적. 이행기적 양상 및 근대화. 자주화라는 우리 근대사의 시대적 과제와 연관 지어 살펴보고자 했다.’는 머리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보완사적 관점의 논문이었다.

두 번째로 여성사와 마주한 것은 2003년부터 한중일 역사대화에 참여하여 《미래를 여는 역사》를 집필할 때였다. 한중일 모두 여성사 전공자가 부재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여성운동, 민족운동, 사회주의운동에서 활약을 펼친 각국의 대표적 여성을 칼럼 방식으로 소개했다. 공헌사적 관점을 취한 것이다.

대표적인 여성 사회운동가로 일본 측은 황태자 암살을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자살한 가네코 후미코를 소개했다. 중국 측은 중국공산당원으로서 중국국민당에 의해 총살을 당하는 순간에도 당당했던 천테권을 뽑았다. 한국 측은 고심 끝에 무정부주의자와 공산주의자를 뽑은 두 나라에 맞추고자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인 정종명을 선정했다. 그럼에도 정종명이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로서 대표성이 있느냐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고심해야 했다. 서구화된 여성상을 소개하는 칼럼에서 일본 측은 선구적 여성운동가인 히라스카 라이초를, 중국 측은 혁명운동에 헌신한 여성화가 허상닝을

뽑았다. 한국 측은 나혜석을 ‘최초의 페미니스트’로 제시했으나 여성운동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흔쾌한 선택은 아니었다. 이 때 ‘여성 인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근대 여성사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 혹은 근대사에서 탁월한 여성운동가가 실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2006년부터 시작된 두 번째 한중일 역사대화에도 참여했다. 이때는 대중서적 성격의 《미래를 여는 역사》보다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를 담을 수 있는 책을 준비했다. 그 결과 2012년에 출간된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2권에는 동아시아 여성사가 들어갔다. 5장 <가족과 젠더-부모자식과 남녀의 관계>가 그것이다. 일본어판의 부제는 ‘남녀관계, 친자관계’다. 중국어판에서는 제목에서 젠더 대신 양성이라 썼다.

이 때는 각 장마다 한 나라가 대표 집필을 하고 두 나라가 자료를 제공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밟았다. <가족과 젠더-부모자식과 남녀의 관계>는 일본 측의 하야카와 노리요(중합여성사연구회 대표)가 대표 집필을 맡았고, 한국에서는 필자가, 중국에서는 왕차오광(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자료를 제공하고 검토를 책임졌다.

하야카와 노리요(早川紀代)는 일본 근대 여성사 연구를 이끄는 여성학자다. 2005년에 ‘전쟁, 폭력과 여성 시리즈’의 하나로 《식민지와 전쟁책임》, 《군국(軍國)의 여성들》 등을 책임편집하고 저서로 《근대 천황제와 국민국가-양성관계를 축으로-》를 발간한 바 있었다. 그녀의 동아시아 근대 여성사에 대한 관심은 2007년에 《동아시아의 국민국가와 젠더》, 2015년에 《역사를 여는-여성사, 젠더사로 본 동아시아 세계》를 편집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하야카와의 근대 여성사 연구의 궤적은 일본 여성사 연구의 ‘현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다. 일본의 여성사 연구는 여성을 억압받는 피지배계급으로 묘사하는 피해자사관에 입각하여 출발했다. 일본의 가(家)제도를 봉건유제로 비판했으며 성차별을 계급차별에 따른 이차적인 문제로 취급했다. 1970년대부터는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여성사 연구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는 일본군 위안부 연구를 통해 일본 여성의 전쟁책임이나 식민지 지배책임을 묻는 활동을 펼쳤다. 이때부터 젠더사적 관점의 연구도 활발해졌다. 젠더사 연구자들은 근대 국민 국가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성차(性差)가 구축되는 과정을 해명하고자 했다. 또한 남/녀 관계를 이항대립이 아니라 관계사로 파악하여 국민국가가 구축한 남-공, 여-사로 구분되는 경제와 성별질서를 상대화하고자 했다.

5장의 부제에 ‘남녀관계’가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야카와는 젠더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여성사를 서술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젠더사적 관점이 부재한 필자에게 여러 번 민족적 시각에서 젠더 문제와 여성해방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측이 자료로 제시한 논문과 사료 등이 공헌사적 관점에서 정리된 것들이기 때문이었다. 젠더사적 관점에서 써내려간 원고에 한국 측이 공헌사적 관점의 자료만을 제공하니 참으로 답답했을 것이다. 최종 원고에는 한국 측이 제시한 자료가 대부분 수용되었지만, 한국 측이 젠더사 연구에 대한 이해에 바탕한 자료를 제공했다면, 하야카와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작업이었다.

여전히 공헌사적 안목에서 여성사를 바라보던 그 무렵, 아나키스트로 여성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엠마 골드만에 관한 책을 읽었다. 다소 생소하게 느낀 것은 노동운동, 반전운동, 무정부주의 운동에 뛰어들면서도 그녀의 여성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은 확고했다는 점이었다. 스스로 여성임을 자각하고 여성의 욕망과 삶과 해방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천운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강한 의지가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근대사 속에서 엠마 골드만처럼 페미니즘의 초석을 놓으면서 동시에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한 여성운동가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일제시기 대표적인 사회주의 운동가인 허정숙에게 눈길이 갔다. 허정숙은 세 번 결혼하고 각기 다른 아버지를 가진 아들 셋을 낳아 ‘조선의 콜론타이’라 불린 여성이었다. 그녀는 1920년대에 페미니즘적 관점에 입각한 글들을 발표하며 이론가로서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1930년 서울에서 여학생 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투옥된 이래 그녀는 여성운동가로서의 면모를 상실했다. 이후 최창익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민족혁명당과 화북조선독립동맹 등에서 항일전사로 싸웠으며 해방 이후에는 북한에서 김일성 정권에 들어가 김정일 정권까지 권력을 누렸다.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되새기며》(1989)라는 회고록이 발간되고

《태양의 품에 안기여 빛내인 삶》(2002)이라는 전기나 나올 만큼 두 정권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결국 허정숙은 엠마 골드만처럼 운동가로서의 일관된 삶을 살지 않았다. 권력 최상층 정치가로서 삶을 마감했다.

허정숙을 비롯한 일제시기 여성운동가들의 생애를 살피면서 근대사에서 평생을 페미니스트 운동가로서 살아온 ‘전형적’ 여성운동가가 사실상 부재했던 원인이 궁금해졌다. 여성운동의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할 만큼 민족운동의 자장이 강력했던 것일까. 아니면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가 등장과 동시에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정치운동에 참여한 이래 일제 시기까지도 서양 근대 여성운동처럼 여성운동의 ‘자립’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 1919년 4월 11일에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는 남녀평등권 조항과 보통선거권 조항이 들어있다. 이처럼 여성운동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결과로 여성의 권리 보장과 참정권이 실현된 역사가 여성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 공헌사적 관점에 충실한 고민이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었다.

2015년에 19세기 한국사를 민주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라는 책을 냈다. 1장 <인민 : 만민평등을 향한 해방의 길>에서 노비해방, 백정해방과 함께 여성해방을 다루었다. 여성해방은 19세기 신분해방과 함께 만민평등의 인민을 탄생시키며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를 놓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또한 보완사와 공헌사적 관점의 서술이었다.

이처럼 여성사 ‘밖’에서 근대사 연구자로서 여성사를 다룰 경우, 보완사적, 공헌사적 관점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았다. 그것은 곧 젠더사가 기존 역사학과는 ‘결’이 다른 안목과 방법에 입각해 있어 학습과 훈련을 요구한다는 걸 의미한다.

3. 현실 속 역사, 여성 독립운동가를 위한 헌사

근대사 연구는 오래도록 지배와 저항, 침략 대 투쟁의 이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탈민족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고대사, 중세사는 물론 현대사보다도 빠른 속도로 기존의 패러다임을 부정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여성사 연구에 가장 열린 분야도 근대사 분야라 할 수 있다. 《역사학보》는 2년마다 한 번씩 시대사별로 연구사 정리를 싣고 있다. 근대사 분야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여성사의 연구 성과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2002년에 처음으로 장제목에 여성사가 등장했다. ‘VI. 여성사. 개설서. 자료 등’에서 여성사 연구를 다루었다. 이에 따르면 여성사는 아직 민족운동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는 공헌사적 관점의 연구가 다수였다. 2005년에는 ‘V. 여성사와 생활사에 집중된 사회사’라 하여 사회사에 포함시켜 여성사 연구를 소개했다. 2008년에는 ‘VI. 도시 지역사 연구의 부상과 여성사 연구’에서 여성사를 다루었다. 2010년에는 ‘VIII 사회사, 교육사 및 여성사 연구 동향’에서 여성사 연구를 소개했다. 2012년에는 여성독립운동가, 여성운동, 여성교육 등을 ‘V. 민족주의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란 장에 포함하여 다루는 후퇴를 보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젠더사적 관점에 주목하여 ‘IV. 주체 계층 연구의 활성화-젠더와 월경적 주체에 대한 관심’에서 여성사를 다루고 있다. 여성을 젠더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여성사 연구를 이끌고 있다고 보면서 가족, 섹슈얼리티, 이혼, 직업, 내선결혼, 도시 속 신여성 등을 다룬 근대 여성사 연구에 주목했다. 지배 남성 대 피해 여성의 이분법적 시각의 극복을 시도한 연구도 소개했다.

이처럼 근대사 연구에서 젠더사는 근대사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기대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젠더사가 확장되는 한편에선, 여전히 공헌사적 관점이 배인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 대중이 기대하는 근대 여성상에 부합한 흐름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체들이 문화 콘텐츠 발굴 차원에서 지역 출신 여성 명사나 여성 독립운동가를 띄우는 가운데, 2015년 7월에 개봉한 영화 ‘암살’은 1200만 명이 극장을 찾으면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암살’에는 조선주둔군 사령관과 친일파 암살에 가담하는 총 쏘는 여성 독립운동가인 안옥윤이라는 가상 인물이 등장한다. 이로 인해 안옥윤의 실제 모델로 지목된

남자현에게도 이목이 쏠렸다. 남자현은 의병으로 나갔다가 목숨을 잃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유복자인 아들을 장가보낸 뒤 47세의 나이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두 차례 암살단으로 나섰으나 모두 실패했다. 1926년에는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목숨을 노렸다. 환갑을 넘긴 1933년에는 관동군 사령관 무토 노부요시를 암살하려다 밀정의 밀고로 실패했다. 이 때 체포된 남자현은 보름간 단식으로 버텨 결국 풀려난 뒤 하얼빈의 여관에서 숨을 거두었다. 한편에선, 안옥윤처럼 살아 돌아온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도 거론되었다. 연안파의 일원으로 여장군으로 활약했으며 해방 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진 김명시와 임시정부의 안주인이라 불리던 정정화가 주목을 받았다. 둘 다 해방 이후 ‘조선의 잔다르크’라 불리던 여성들이었다.

영화 ‘암살’이 극장에 걸리기에 앞서 2015년 3월에는 알려지지 않는 여성독립운동가 현앨리스의 비극적 생애를 조명한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가 출간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산 현앨리스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그녀는 제국의 원심력에 의해 근대 한국에서 튕겨나간 뿌리 뽑힌 존재였고, 한국적 디아스포라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일본제국의 신민, 미국의 시민, 남한의 국민, 북한의 공민 중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이질적이고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어디에도 동화되지 않고 어디에도 귀속될 수 없는 그녀의 정체성과 부동하는 경계적 삶은 결국 그녀에게 스파이의 굴레를 씌웠다. 일본의 입장에서 그녀는 ‘위험한 좌익 혁명분자’였고 미군정의 눈에는 ‘좌익과 소통하는 악마적 존재’로 비쳤으며 북한에서는 ‘미제국주의의 고용간첩’으로 낙인찍혔다.

학계와 언론의 호평 속에서 이 책이 ‘새롭게 조망되고 있는 여성사 혹은 여성운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서평이 나왔다.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는 현앨리스와 함께 당대 진보적, 사회주의 계통의 여성 연구에 충분한 자극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 여성사에서는 각 체제에 부합하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현대 여성사가 연구되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주의를 벗어난 여성운동사와 여성사는 일찌감치 사라졌다. 남한에서는 1980년대 이후 진보적인 여성운동사와 여성노동운동사 등이 연구되기 시작하여 최근 들어 다양한 여성운동사 또는 여성사가 연구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도 현앨리스와 같이 경계인적 여성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주목받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특히 사회주의 계통의 독립운동 속에서 여성들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 발굴로부터 시작된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태평양전쟁기와 해방과정에서 미국(미군정 포함)에 협력했던 현앨리스나 김수임, 그와 같은 여성 지식인들의 활동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 그들의 활동을 단순히 남성 주도의 활동 속에서 남성의존적인 부수적 성격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들의 능동성을 부정하는 가부장적 시선이다. 따라서 현 앨리스는 그간 배제되어 있던 여성사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와 달리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를 읽으며 여성은 사라지고 운동만 남는 듯한 당혹감을 느꼈다. 저자는 분명 책 첫머리에 “이 책은 현앨리스(1903-1956?)라는 여성의 삶과 비극적 최후를 다룬 것이다.”라고 썼다. 하지만 이 책에선 현앨리스의 여성으로서의 ‘삶’을 읽어내기는 쉽지 않았다.

이 책은 현앨리스라는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으나 현앨리스의 3대에 걸친 가족사와 재미 한국인 진보운동사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래서 정작 주인공인 현앨리스의 내면세계와 그의 생활상을 알기는 어렵다. 현앨리스보다는 ‘그의 시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현앨리스의 활동보다는 그녀가 그러한

발자취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 ‘주객의 비중이 역전된 느낌’이라는 평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를 ‘현엘리스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지만 이 책은 그보다 훨씬 많은 양질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서평도 있다.

결국 공헌사적 관점을 취한 이 책을 통해서는 ‘현엘리스처럼 식민과 분단으로 개인과 가족의 삶이 깃뚫힌 사례’를 온전히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절대적 자료의 부족 때문이라 이해하면서도 혹시 여성의 주체적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안목, 즉 젠더사적 관점에서 자료를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짐작해 보기도 했다. ‘자료의 문제일까, 관점의 문제일까’를 곱씹으며 이 책이 결국 현엘리스의 여성으로서의 삶을 젠더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여지를 남겼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년 뒤인 2016년 3월에는 《조선의 딸, 충을 들다》라는 책이 발간되었다. 부제는 ‘대갓집 마님에서 신여성까지, 일제와 맞서 싸운 24인의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다. 영화 ‘암살’이 저자로 하여금 이 책을 쓰도록 만든 계기였던 듯하다.

근래 들어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2015년 여름 전국을 강타한 영화 암살이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 중의 하나인 여자 독립군 안옥윤의 활약상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여자의 몸으로 제 키만한 장총을 차고 조선 총독과 1급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중국에서 조선 땅으로 건너왔다. 안옥윤이 적들에게 총을 난사하는 장면은 대단히 낯설었다. 여성 독립운동가라면 태극기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소녀 유관순 밖에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안옥윤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활동을 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여럿 있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2016년 1월 현재 훈.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4,262명인데 이 중 여성 독립유공자는 270명으로 전체의 2%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를 촉구한다.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시기별로, 분야별로 수많은 여성 항일투사들이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했다.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분은 불과 270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아직 이름조차 밝혀내지 못한 분들도 있고 공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며 이념문제로 인해 포상이 보류된 분들도 적지 않다. 혹자는 남성 독립유공자 수만큼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나와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와 고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은 국가기관으로까지 번졌다. 국가기록원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국내외 여성독립운동사에 대한 자료총서를 매년 단계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16년 2월에는 첫 권으로 여성 3.1운동사 관련 기록문을 모은 《여성독립운동사 자료 총서-3.1운동 편》을 발간했다. 이는 한국여성독립운동사와 관련한 최초의 자료집이다.

앞으로도 대중성이 다분한 공헌사적 관점의 근대 여성사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역사대중화의 흐름이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공훈에 맞게 국가적 예우를 갖출 것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근대사 연구가 추구하는 탈민족, 탈근대적인 ‘문화적 전환’과는 엇나가는 방향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여성독립운동사는 이제껏 독립운동사 연구가 걸어온 길을 답습하며 누락되었던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공훈을 매기는 보완사와 공헌사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여성독립운동가의 생애를 오직 독립운동에 매진한 삶으로만 재구성해야 할까?

학교강의에서 몇 년에 걸쳐 ‘ 독립운동가의 입장이 되어 편지쓰기’ 라는 보고서를 쓰게 한 적이 있다. 최근 색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이 여학생이지만, 남성 독립운동가에 빙의하여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주인공으로 써오는 경우가 늘었다. 또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영웅시하기보다는 여성으로서의 그녀들의 삶과 고뇌에 찬 선택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한 학생의 편지를 여기에 그대로 옮겨본다.

사랑하는 남편께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저는 만주에서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행여 제 걱정애 잠을 설치지는 않으실지, 식사는 제때 챙겨 드시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아픈 곳 없이 잘 지내는지요. 막내는 종종 엄마를 찾을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옆에 있어줄 수 없어 미안할 따름입니다.

요즘 들어 만주로 떠나겠다고 저를 말리시던 당신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 지금이라도 저의 진심을 전해보고자 편지를 씁니다. 제가 떠난 이후로 당신과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원망했는지 저도 압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은 채 만주로 떠난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저와 당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모두를 위한 일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그저 우리의 뜻 하나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언젠가 몇 년이 흘러서라도 우리의 의지와 진심이 모이면 우리나라도 해방 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하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당신이 더 행복해질 것이고 당신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저의 행복이에요.

우리 혁명 동지들은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영웅 놀이나 하는 철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당신만은 저의 뜻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아직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겠지만 먼 미래에는 저를 이해해줬으면 더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아니, 엄마 노릇은 제대로 하지도 않은 엄마지만 저를 기억해주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죽는 것이 두렵고 우리 혁명 동지들도 그럴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리기도 합니다. 밤에 모여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날도 있어요. 걱정과 그리움에 우리의 의지가 구부러지는 날은 있지만 꺾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함께 하는 혁명 동지들이 있어 저는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쯤 저의 편지를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부디 제 걱정은 마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피주세요.

이처럼 영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상상하는 ‘ 대중적’ 흐름의 등장은 공훈사적 연구를 넘어 젠더사적 관점에서 여성 독립운동가의 ‘ 삶’ 을 재해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 독립운동가=공훈사적 연구라는 도식을 깨야 한다는 얘기다.

4. 역사 속 현실 : 젠더사를 지향하다

1980년대 말부터 여성운동의 성장, 여성학의 확산 그리고 민중사학의 출현에 힘입어 여성사 연구가 활발해졌다. 민중여성사 연구와 페미니즘적 시각의 여성사 연구가 확산되었다. 특히 근대 여성사에서 많은 성과가 나왔다. 1920년대 사회주의 여성운동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았고 페미니스트 여성관/여성의식에 대한 관심은 신여성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1930년대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의 변모과정에 대한 연구 성과도

나왔다.

1990년대에 들어와 젠더를 통해 여성의 경험이나 사회적, 정치적 실천을 새롭게 분석하고자 한 서양의 젠더사적 관점의 이론서와 역사서들이 여성사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젠더사 수용 초기에는 젠더를 ‘양성관계’ 또는 ‘성별’이라 번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직 보완사적, 공헌사적 관점의 근대 여성사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여성 인물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를 대표하는 연구 성과로는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에서 공을 들여 추진한 ‘한국여성사 정립을 위한 여성인물 유형 연구’가 있었다. 전시대를 망라한 연구로서 근대 여성사는 개항에서 3.1운동까지, 3.1운동 이후부터 해방까지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한국근대여성사 연구 성과를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 새로운 자료를 한층 더 발굴, 정리,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가설적인 논의를 보다 확실하게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다만 광범위한 시기와 대상을 엄밀한 사회과학적 여성사 방법론의 일정한 분석틀의 제시 없이 해석하고 설명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인물의 유형화 시도는 당시 여성의 삶을 분석 설명하는데 유효할 뿐 아니라 이들 여성의 삶의 역사를 통하여 당시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 여성의 삶을 유형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틀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앞으로 역사창조의 주역이 되는 미래지향적 여성의 삶의 방향을 일정하게 제시하는 데에도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서 사회과학적 여성사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한 것은 이론과 방법론을 중시하는 젠더사적 관점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근대 여성사 연구가 여성교육과 여성운동에 집중하는 현상도 지속되었다. 젠더사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성 일상생활, 여성노동, 여성의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와 역사학계에서 여성사가 시민권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한국사시민강좌》가 1994년에 나온 15집에서 여성사를 기획논문으로 다루었다. 1996년에는 《역사학보》가 150집 특집을 여성사로 꾸몄다. 그럼에도 2000년대 초반까지 여성사의 연구 역량은 빈약한 편이었다. 해방 이후 2003년 말까지 생산된 369건의 여성사 관련 문헌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15건 이상 문헌을 생산한 연구자가 2명, 학위논문을 포함해서 5건 이상 생산한 연구자가 11명에 불과했다. 2004년에는 한국여성사학회가 출범하면서 《여성사》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2015년까지 23집을 발간했는데, 한국사 관련 논문 87편 중 27편에 근대 여성사에 관한 것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젠더사적 관점의 연구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2007년과 2013년에 발표된 근대 여성사 연구 성과를 분석한 글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송희는 2007년에 해방 이후부터 2006년까지의 여성사의 성과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시기구분을 시도했다.

1. 근대 여성 연구의 시작-1950. 60년대
2. 여성의 지위향상과 관련한 연구: 1970년대
3. 민중여성을 역사의 주체로 하는 연구 시도 - 1980년대
4. 새로운 근대 여성 연구의 시도 : 1990년대, 2000년대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장에서는 주제를 신여성 연구, 공창제, 군위안부 연구, 여성운동 연구, 여성교육 연구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리고 여성사는 아직 역사학계에서 주변적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연구자의 숫자도 많이 않아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2013년에 홍양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먼저 ‘여성사인가 젠더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여성 인물사/운동사적 접근’, ‘가족과

여성/젠더 연구', '도시 공간, 문화, 그리고 신여성/모던걸', '국가/민족의 경계를 넘는 인간, 지식 그리고 여성/젠더', '전쟁과 여성 동원의 문제' 등으로 주제를 나누어 연구 성과를 정리했다. 2007년의 정리와는 인식과 방법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젠더사적 관점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이를 또한 젠더사적 관점에서 정리한 안목이 돋보이는 분석이다. 근대 여성사 연구에 있어 젠더적 관점의 확산은 여성사의 구성 언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홍양희의 글처럼 역사학에서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젠더적' 언어를 사용한다.

여성의 '주체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도 상반된 연구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초기 여성사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자각이나 이를 통한 주체성 확립은 여성 해방의 정치로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정체성 정치나 재현의 정치학이 여성의 주체화에 작동하는 방식을 고찰한다. 근대권력/근대정치, 젠더정치, 그리고 여성의 주체화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얽혀 있는지 또한 주요한 연구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성들의 행위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다층적인 측면에서 고민의 지점들이 존재한다. 아울러 논쟁의 지점을 다방면적으로 발굴하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젠더사의 구성 언어에 대한 낯설음은 젠더사가 역사학 전반이 사회과학과의 '관계성'을 무시하는 것과 달리 사회과학의 젠더/젠더사 연구와 어우러져 이루어지고 있는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역사학뿐만 아니라 타 분과학문에서 여성사/젠더사 연구 성과들이 다수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한국문학, 역사사회학, 여성학, 가정학 등의 학제에서 훈련받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문화 연구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식민지 모더니티의 문제나 젠더 정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 내부의 차이와 정체성 정치 또한 이들의 주요 관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략) ... 젠더 패러다임이나 문화적 전환의 인식론을 수용하는 연구자들은 적게나마 존재하기는 하지만 역사학 연구자들의 대부분은 소위 기존의 전통적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 경향이 강하다. 그런 반면 타 학제 연구자들은 주로 젠더사의 인식론과 방법론을 채택하는 특징을 띤다.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역사학에 등지를 튼 젠더사가 이론과 방법론에서 여타 학문에 비해 약한 면모를 보이는 것은 역사학 전반에 걸쳐 사론이 부재한 현실의 반영물이기도 하다.

젠더사적 관점의 근대 여성사 연구를 대표하는 성과로는 서울대 여성연구소가 2013년에 내놓은 《경계의 여성들 : 한국 근대 여성사》가 있다. 집필에는 역사학자를 포함하기는 했으나, 주로 사회과학 전공자들이 참여했다. 이 책은 근대 한국의 여성을 둘러싼 독특한 조건을 가족과 직업, 섹슈얼리티, 여성주의 의식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가족과 직업 문제는 근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 가장 기본적인 사회 조건이다. 섹슈얼리티는 근대 시기 여성을 대상화 상품화하고 강제 동원의 영역이 되었다. 신여성과 재조일본인 여성은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 여성주의 의식이 어떻게 내면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주요한 여성 주체다.

이 책에 대한 소현숙의 서평에도 젠더사적 관점이 또렷이 드러나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식민지 근대는 수탈론이 제시해 온 일방적 억압의 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대론이 내세웠던 개발과 같은 긍정적인 술어로 서술될 수도 없는 해방과 억압, 주체화와 타자화, 독립과 의존이라는 모순적인 가능성이 열린 시대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양날의 칼 위에서 여성들이 각자가 놓인 지점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를 일구어 갔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능성에 주목하여 경계의 여성들이라 이름 지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여성들의 적극적 행위 혹은 주체성에 대한 해석이다. 식민지 근대는 어머니, 여성노동자, 신여성, 빈곤층 여성, 기생, 창기, 위안부 등 여성의 각기 다른 정체성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통제담론과 기제를 만들어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도 여성들은 나름의 전략을 통해 그러한 통제로부터 벗어나거나 틈새를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여기서 젠더사적 관점의 평가와 함께 주목할 것은 젠더사적 관점의 근대 여성사 연구가 식민지수탈론 대 식민지근대화론의 이분법이 작동하는 근대사 연구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살폈다는 점이다. 근대사 연구의 문화적 전환에 젠더사가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근대사를 비롯하여 역사학에서 젠더사가 온전히 안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정현백은 ‘한국역사학은 여전히 성 맹적(sex-blind)이며 여성사에 대한 공인은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피할 수 없는 일이나 여성사 일반의 여성 문제 혹은 젠더 문제에 대한 감수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또한 역사학이 사회과학에서 연구의 축으로 삼는 계급, 인종, 젠더체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학에 젠더의 잣대에 기반한 성찰과 역사의 ‘재’ 서술을 촉구했다.

남성중심의 엘리트에 의해 서술된 기성 역사학은 젠더의 잣대를 통해 새로운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를 통해서 역사학은 그 통사에서부터 재해석과 재서술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학은 사회과학과의 소통이나 교류를 강화하고 학제적인 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방법론의 정교화를 시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역사서술의 젠더화 문제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또한 여성사 연구자들에게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공세적 대응을 주문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서구에서 젠더가 새로운 문제의식이자 연구범주로 떠오르면서 여성사 연구에서 젠더사 연구로 진화해가고 있다. 이미 여성학이나 사회과학 연구자 사이에서는 젠더 범주가 분과학문 연구의 핵심적인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역사학계는 이런 경향을 잘 수용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서는 여성사 연구가 오히려 젠더 역사의 연구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역으로 변화를 꺼리는 기존 역사연구에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사 연구자들의 공세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공세적 대응의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나올까. 학문적으로는 젠더사를 둘러싼 활발한 논쟁이 우선 필요하다. 여성사 연구자들은 출발부터 논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으나, 이제껏 논쟁은 부재했다. 보완사/공헌사에 기반한 ‘여성사’와 젠더사 간에 충돌이 있을 법한데, 지금도 서로를 외면한 채 평화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양자의 공존이 여성학 연구의 위상 제고와 저변 확대에 득이 될 지 아니면 실이 될 지부터 따져볼 일이다.

5. 여언 : 한 여성 역사학자의 죽음이 남긴 숙제

근대사 연구에서 ‘ 새로운 역사학’ 에 대한 갈망은 높다. 하지만 젠더사가 주변학이라는 처지에서 벗어나 역사학의 중심부로 진입하기엔 장벽이 너무나 높다. 이 장벽은 견고한 남성권력에 의해 쌓아 올린 것이라 허물기 쉽지 않다.

근대사만이 아니라, 한국사, 나아가 역사학은 여타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과 견주어 볼 때 남성권력에 의해 독점현상이 강한 학문이다. 역사학 관련 학부, 대학원, 연구소 등에는 여성의 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문권력을 쥔 교수직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국적으로 역사학 관련 교수는 대략 700여명에 이른다. 여성교수의 수는 70명으로 10%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 중 21명만이 한국사를 전공한다. 전체 역사학 관련 교수 중 50%를 한국사 전공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사 교수 중 여성 교수의 비율은 6%에 불과한 현실이다. 교수 전원이 남성으로만 구성된 학과의 비율도 높다. 대학의 대중화와 함께 여학생의 수가 늘고 이에 따라 여성교수의 비율도 늘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 여성사 전공자들이 대거 교수에 진출한 서양의 사례가 한국 역사학에서는 현실이 되지 않았다.

2014년 한 신문에 ‘ 을’ 인 여성 역사학자를 자살로 몰아넣은 ‘ 갑’ , 즉 교수를 질타하는 칼럼이 실렸다.

한국의 한 지방도시에서 한 여성이 한국사를 전공했다. 관심사가 다양해, 정치사부터 음식이나 복식의 역사까지, 폭넓게 연구 활동을 벌여 학술논문도 대중교양적 성격의 글도 썼다. 물론 박사학위 소지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에게는 두 가지 약점이 있었다. 하나는 한국 지배층의 언어인 영어가 아닌 평민의 언어, 즉 한국어로 학술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 땅에서 한국사를 같은 한국인에게 가르친다 해도, 상전 국가의 말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검증된 사람, 즉 영미권 중심의 학술시스템에 편입된 사람이 아닌 이상, 대학교원으로 임용이 어려운 게 이 나라의 현주소다. 두 번째는 지방대를 나온 현대판 천민으로서, 그에게 유일한 정규직 취업 가능성은 그 출신 대학으로의 취직이었다. 간판이 ‘ 자유민주주의’ 인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지만, 이는 실질적으로는 학계의 불가촉천민이라고 할 지방대 출신들에게 그대로 해당되지 않는다. 운 좋게 외국에 ‘ 학술 망명’ 하여 거기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이상, 그들을 반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그들의 출신 학교이기 때문이다.

출신 학교의 사학계 권위자는 그의 약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다. 아무리 부러먹어도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를 비정규직으로 취직시켜 고되게 착취했다. 그는 일단 꺾 참았다. 언젠가 정규직이 될 희망 때문만은 아니었다. ‘ 영어도 못하는 지방대 출신’ 을 인정할 수 있는 곳이 그 모교 말고 어디도 없었다는 것도 아주 컸다. 타자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과연 인간이 존엄성을 지키고 사는 것은 가능할까? 하지만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취직은 제일 큰 문제였다. 그는 자신을 부려온 권위자가 퇴임 이후 자신을 후임으로 뽑을 것을 기대했다. 계속해서 “ 챙겨주겠다” 고 약속해온 그를 일단 믿어본 것이다.

그러나 보스가 아랫사람을 착취하는 만큼 그 미래까지 챙겨야 했던 온정주의적 개발국가 시대는 이미 지났다. 신자유주의 모범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 어떤 언약도 그저 이익추구의 도구에 불과하며, ‘ 갑’ 에게 불리하기만 하면 바로 파기된다. 그 역시 그 ‘ 갑’ 에게 속고 말았다. 실제 후임으로 뽑힌 사람은 별다른 업적은 없었지만, 권위자 자신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출신으로 사학계의 ‘ 성골’ 이라고 할 인물이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대학이라는 이름의 착취공장에서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오로지 불안노동 속의 착취와 궁극적인 폐기처리라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 ‘ 을’ 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같이 연대해서 투쟁하기에는 대학 비정규직들은 너무나 원자화돼 있다. 살인적 업적 경쟁으로 각종 사적인 관계망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대학의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들에게 연대란 대단히 어려운 이상이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피곤했다. 착취와 멸시에 지칠 대로 지친 것이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채점을 마치고 나서다. 그 자살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려 했던 권위자는 그를 ‘정신 이상자’라고 사후에 규정했다. 아무리 비극적으로 죽어도, 상아탑의 천민은 죽고 나서도 계속 귀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해야 하는 모양이다.

이 칼럼을 읽고 제일 먼저 누구일까 궁금했고, 박노자가 여성 역사학자인 ‘그녀’를 시종일관 ‘그’라 부르며 ‘을’로만 파악하는 게 불편했다. 이내 역사학 안에서 상당한 파문이 있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일은 더 이상 회자되지 않았다. 지난 2년간 지독한 침묵의 카르텔을 경험한 셈이다. 이 일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고 결국 여성 역사학자를 한명씩 검색하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른 그녀의 이름을 찾아냈다. 그러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남성권력이 완벽하게 장악한 역사학이 여성사와 여성 역사학자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는 시간들이 지속될 때, 과연 여성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작년에 미국의 여성 역사학자로부터 ‘여성사 전공자를 포함하여 여성 역사학자들만의 조직을 만들어 여성사 연구 역량을 배가하고 남성권력에 맞서 여성 역사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여성사 연구자들이 활동하는 학회가 이미 있으니 전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남성중심의 지극히 보수적인 역사학계에서 여성 역사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대답했지만, 한 여성 역사학자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오래도록 씩씩한 여운이 남았다.

근대 여성사 연구가 최근 성취한 젠더사적 성과들이 역사학 안에서 온전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현실 속에서 후배가 보내온 일제시기 내선결혼을 분석한 두툽한 박사학위논문을 펼치며 풀지 못한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다시 고심하게 된다. 지금처럼 현실 장벽을 계속 외면하며 연구자로서의 삶을 지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기 위한 실천을 모색해야 하는가의 문제 역시 활발한 논의와 논쟁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성사 연구자/여성 역사학자들은 우선 죽은 논쟁 문화를 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듯하다.

발표문

역사를 이해하는 여성주의적 방식에 대하여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배은경
(서울대학교)

1.역사는 ‘ 과거사’ 가 아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식민지시기를 몸으로 살아낸 세대가 아닌 한국인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1980년대 끝자락의 일이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일본인들의 ‘ 기생관광’ 을 사회문제로서 제기해 온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노력이 있었고, 그 속에서 이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소환된 것이다. 1988년 4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주최한 <여성과 관광문화>라는 제목의 국제세미나에서, 이화여대 윤정옥 교수가 1988년 2월부터 15일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오키나와까지 답사한 결과를 「정신대 답사보고」라는 제목으로 발표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공식화된다.

윤정옥 교수는 그 자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동년배로, 이화여전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3년 학교에서 일본 군인으로 보이는 무리들에 의해 정신대 동원 문건에 지장을 찍고, 곧바로 학교를 자퇴함으로써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았다. 당시에는 위안부라는 말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 지장을 찍은 종이에 쓰인 깨알같이 작은 글씨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으나, 당시는 전쟁 중으로 총독부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이었고, 처녀들을 정신대로 끌고 간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상황이었다. 윤정옥 교수는 자신이 끌려갈 뻔했던 ‘정신대 여자들’을 기억했고, 그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늘 궁금해 했다. “해방이 돼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갔던 남자들은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없었거든(『아시아경제』, 2014.9.3.).” 해방이 되자 그녀는 학도병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서울역으로 나가, 정신대로 끌려간 여자들의 소식을 물었으나, 돌아온 말은 “개들은 위안부야”라는 매정한 대답뿐이었다. 그때부터 윤정옥 교수는 이 문제를 평생의 과제로 가슴 속에 품었다.

윤정옥 교수의 「정신대 답사보고」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의 여성운동단체들은 이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다. 1988년 7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산하에 <정신대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을 시작했고,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맞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0년 11월, 36개 여성운동단체들이 모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발족하였고, 1991년 8월 14일,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로서 최초의 증언자가 된 김학순 할머니가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비로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실체를 갖춘 역사적 사건으로서 자리매김 되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과 그해 말 미국에서 발견된,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의 관리에 관여했다는 미군 보고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사건으로서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까지 한국 여성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90년 6월, 위안소는 민간이 경영한 것이라며 국가 개입을 전면 부인하였으며, 1991년에도 “조사하였으나 단서가 될 자료가 없다”, “보상문제는 한일협정으로 일괄 해결되었다”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한국 정부도 별다른 외교적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었다. 한국 여성들의 ‘진상규명’ 및 ‘사죄’ 요구가 일방적인 대일 요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증인’과 ‘문서’의 발견이 사태를 전환시켰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그대로 역사가 되지는 않는다. 그 시절에,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이 “있었다”. 그 여성들이 함께 살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어렵사리 돌아온 여성들이 있었으며, 스스로 기억을, 고통을, 존재를 봉인한 채였을망정 그 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들은 살아내고 있었다. 그런데도 1991년 광복절 이전까지, 해방 후 (피식민의 기간보다도 더 긴) 45년이 지나도록, 그 일은 역사가 되지 못했다. “범죄를 저지른 주체가 자기 범죄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로 글자로 그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일은 침묵당한 경험과 과편화된 소문으로, 나이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박제되어 망각의 저편으로 사라져 가는 중이었다. 증인과 문서가 함께 갖춰지기 전까지 국가는 (일본 정부 뿐 아니라 적어도 1990년까지는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도) 이 문제를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과거사”로 치부하였으며, 그 “과거사”는 되도록 빨리 봉합되어야 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할 외교적 걸림돌로 인식되었다.

다시 한 번, 역사는 과거사가 아니다. 역사란 것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기록 속에서 찾아내어 역사가가 구성하는 것이다, 개별 기억을 집합기억으로 만드는 일이다 등등의 다양한 사관(史觀)에 대해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과거사는, 그저 흘러간 일이다. 그러나 역사는, 사람들(people)이 만드는 것이다. 거대한 시공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크고 작은 집합 경험의 일부로서의 개인적 경험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결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만들 수는 없으되, 어쨌든 역사를 만들어가는 행위성의 담지자들. 윤정옥 교수라는, 과편화된 소문과 기억들을 추적하고 수집하여 그 경험들을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여성’ 연구자가 있었고, 김학순 할머니라는, 생존자이자

피해자이며 또한 증언자인 ‘여성’이 있었기에 비로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역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역사의 주체로서의 여성.

2. 일본군 ‘위안부’를 과거사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

2015년의 <12.28 합의>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의 외교적 걸림돌로서의 ‘과거사’로 보고 시급히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관료적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겉으로 “화해”를 내세우며 91년 이후 15년간 이루어진 모든 학문적 연구 성과를 정대협 등 일부 세력에 의한 왜곡으로 몰아세운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는, 이 문제를 과거에 있었던 일의 현재적 왜곡으로 인한 무용(無用)·무가치한 갈등으로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녀는 스스로를, 왜곡을 바로잡는 사람, 이른바 “예외적인 사례의 일반화된 수용”에 의해 만들어진 위안부의 이미지(=소녀상)를 깨고 실재했던 다양한 위안부의 체험을 오롯이 재현하는 사람으로 (감히) 위치 지운다. 해방 후 45년, 이 문제가 역사의 문턱을 넘은 후 또 25년의 기간을, 문제를 ‘과거사’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지우고 싶어 한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미 역사이며, 역사로서 끊임없이 갱신되는 현재적 문제라고 본다. 2016년은 ‘진상규명’과 ‘사죄’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던 1990년이 아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그리고 남성들의 노력으로 문제의 실상은 끊임없이 발굴되고 있으며, 이것은 ‘진상’의 구성을 위한 자료들로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문제의 의미는 다층적인 위치에서 다차원적으로 재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학문의 세계 내에)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함을 통해 이미 증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 자체 인류사에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지는 등불이 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국제사회에 대한 고발과 문제제기에 의해, (그 이전까지 전쟁의 부수적 피해 정도로 여겨졌던) 전시성폭력이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범죄로 자리매김 될 수 있었다. 할머니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이미 <나비기금> 등을 통해, 인류사 속에 존재하는 전쟁과 지배, 성착취와 인권유린에 맞서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지구상의 모든 무력갈등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노력, 미군과 한국군의 위안부 문제나 베트남 전쟁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한국내의 문제제기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우리도 똑같았다”라는 반성,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성찰이, 끊임없이 갱신되는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통해 성장하고, 전수되고, 행동으로 옮겨진다.

3. “한국의 여성주의자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것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역사를 쓰고 싶어 한다. 역사 속에 여성을 행위주체로서 기입하고 싶어 하고, 비가시화 되고 무화(無化)되어 온 여성들의 경험을 역사 속에 복원하고 싶어 한다. 역사적 현재의 젠더 관계에 개입하여, 미래의 젠더 관계를 더욱 평등하게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젠더 관계의 역사를 과거형이 아닌 현재완료형으로서 탐구한다. 그러나 역사를 쓰는 여성주의자들의 작업은 여러 가지로 난관에 부딪힌다. 무엇보다 ‘사료’가 문제가 된다. 역사의 기록이 남성에게 의해, 남성적 시각에 의해 생산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여성들의 존재와 행위성을 발견해 낼 수 있을까. 사료라는 것이 아무리 ‘저기 어디에’ 있어서 발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적 시각과 역사에 관한 선행 지식을 동원하여 재구성해 내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어진 가부장적 구조 속에서 공식적으로 행위주체로 등장할 수 없었던 여성들의 경험을 역사적 분석의 대상이 될 자료로 만들어내는 작업 자체가 지난할 수밖에 없다. 설령 어떤 기록을 발굴하고 재구성하여 사료적 가치를 갖는 자료로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자료의 생산과정 자체에 이미 개입해 들어가 있는 가부장적 편견을 넘어서서 그 젠더적 의미를 읽어낼

인식들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은 또 다른 문제로 남는다.

2000년대 이후 구술사가 새로운 역사쓰기의 방법론으로서 여성주의 연구자들에 의해 각광받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구술사 인터뷰는 면접자가 궁금한 것을 묻고 구술자가 답하는 심층면접과는 달리, 구술자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고 면접자가 듣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술자의 (역사적) 경험이 (가령 일본군 ‘위안부’의 당시와 이후의 생애경험과 같이) 트라우마적인 것일 때에, 면접자는 경청하는 자로서 구술자가 자신의 상처와 억압을 털고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면접자의 해석이 구술자에게 치유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구술행위 그 자체가 구술자에게 해방의 경험이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구술사 텍스트는, 그 자체 역사쓰기의 자료가 되지만, 텍스트를 만드는 작업 자체가 상호구성적인 역사쓰기라고 해석되기도 한다(여성주의 구술사에 대해서는 김성례, 2002; 윤택림, 2010; 이나영, 2012 등 참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는 여성주의 구술사 연구에 있어서도 큰 줄기를 차지한다. 전쟁범죄로서의 성노예제라는 문제의 특성상, 직접적인 문서 기록을 찾아내기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이 사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채록 작업은 1993년 1집을 시작으로, 2004년 6집까지 이어졌다(한국정신대연구소, 1993; 1997; 1999; 20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1; 2004). 초창기의 증언집들이 ‘진상규명’이 절박한 상황에서 구술사라기보다는 심층면접 자료 정리에 가까운 방식으로 그녀들의 증언을 전달했다면, 2001년에 나온 <제4집> 부터는 역사를 쓰는 여성주의자들의 방법론적 고민이 절절하게 들어간 방식이 시도되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침묵과 금기를 깨고 자신의 상처를 헤집으며 나오는 것이었고, 사회의 기존 인식들과 싸우며 이뤄지는 것이었다. 증언을 듣고 기록하는 면접자들은 피해자들의 투쟁(증언하기=담론투쟁)을 아프게 지켜보고, 그녀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공감적 경청자였으며, 이후 그 증언을 증언집으로 펴내면서 그녀들의 이야기를 어떤 틀에 가두지 않기 위해 지난하게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 증언이 편집된 것임을, 면접자 자신이 면접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본인의 위치와 작업을 밝힘으로써 독자에게 전달했다. 4집 이후의 증언집 작업들은 대개 이러한 방식을 따라 이루어졌다.

문제는 이 <증언집>이 구술 자료집이지, 구술사 논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증언집들은 다양하고 다층적인 목소리들을, 각각의 피해자들의 삶의 곡절들 속에서 망설임과 좌절과 회한과, 담아낼 표현을 찾지 못한 경험들(가령, 강간, 성폭력이라는 명사로 표현하지 못하고, 군인들을 받았다, 당했다라는 서술어로만 겨우 표현되는 그 경험들)에 대한 회고적 기억들로 구성된 그 이야기들을, 가능한 한 “자료로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독자들이 스스로 그 다층적인 증언들 속에서, 그들의 “과거”를, 위안부의 경험과 실상을,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신산한 삶의 과정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자료 제시 방식은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여성학계, 여성주의자들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고, 이 문제에 대한 연구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조이데올로기, 빈곤, 식민주의, 전쟁, 그리고 노골적인 가부장적 성착취와 여성에 대한 폭력, 나아가 여성운동의 주체로서의 피해자, 당사자성 등에 대한 고민들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한국의 여성주의자들 가운데 이 문제를 단순한 “외교문제”로서의 과거사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한국의 여성주의자들이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과, 여성주의 공동체 바깥에서 “여성주의자들이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겠지”라고 생각되는 방식이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이다. 대중들은, 그리고 여성주의 바깥의 독자들이나 연구자들은 이 여성들의 경험이나 목소리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제국의 위안부> 사태나 ‘12.28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대중들, 특히 남성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1990년대 초의 그것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크게 실망하였다.

1992년과 91년의 한국 미디어에서 이 문제를 보도한 방식을 연구한 김수아는, 당시에 언론이 피해자의 증언들을 비극의 주인공, ‘한’ 많은 불쌍한 한국 여자의 이야기로

재현하곤 했음을 밝혀냈다. 사진들은 피해자가 흘리는 눈물을 클로즈업하고, 텍스트는 그녀들이 ‘한 많은 삶’을 이야기하며 “눈물짓고”, “오열하고”, “울음을 터뜨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민족의 수난”, “우리의 치욕”으로 규정했다(김수아, 2000: 88). 우리나라에 힘이 없어서 한국 여성들을(=그 여성들의 순결을) 일본에 “빼앗겼다”라는 생각이 당시의 언론보도를 지배하는 담론들이었다. 이 경우 ‘나라’는 남성으로 표상되고, 여성들은 ‘나라’ 혹은 ‘우리’의 소유물 혹은 보호해야 할 자산이 된다. Chatterjee(1993)의 연구에서 이미 잘 밝혀졌듯이, 식민 지배자에게 식민지 여성은 정복의 전리품이거나 활용 가능한 식민지의 자원인 반면, 피식민자들에게 여성은 보호되어야 할 민족의 자산이거나 도덕성의 상징이며, 이같은 피식민국 민족주의 담론의 특징은 1990년대 초 한국사회의 일본군‘위안부’ 이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조였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좌절과 트라우마로 인해 무의식의 저편으로 넘기고 살아야 했던 기억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순결·정조이데올로기와 그와 연관된 민족주의적 젠더 상상력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틀 지워 버렸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993-4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대립구도 속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기를 촉구하는 일련의 논문이 제출된다(강선미·야마시타 영애, 1993; 김성례, 1994; 김은실, 1994). 식민지배와 전쟁에 수반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가부장적 성착취의 측면이 논의에서 휘발되고, 가해자 일본과 피해자 한국의 민족주의적 구도 속에서 정작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존재가 무시되고 소비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였다. 당시 한국의 민족주의 담론과 여성에 대한 착취 혹은 소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가령 김은실(1994)의 논문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보다 더 많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 영화 <서편제>의 흥행을 보자. 득음을 위해 아버지가 아들의 눈을 멀게 한다는, 아동학대에 여성에 대한 폭력에 가부장적 권력에 대한 승인으로 가득찬 텍스트가 예술혼,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과 같은 말로 상찬을 받으며 한국영화사상 최고의 관객을 동원하던 때였다. 눈이 먼 송화는 ‘한’ 많은 한국인을 상징하며, 가장 한국적인 문화와 예술의 표상으로 이해되었다.

1993-4년의 이 논문들은, 한국의 여성주의자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역사화하기 위해서 당시의 담론구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들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이나 ‘실상’, 혹은 왜곡의 문제를 따지는 작업이 아니었던 것이다. 문제를 문제로서 자리매김하고, 관련된 행위자들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기억들을 집합적인 기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성주의자들의 고민이 당시 한국사회의 무성찰적 가부장적 민족주의 담론과 이론적 자원(1990년대 초는 탈식민·포스트모던적 페미니스트들의 ‘민족주의’ 연구들이 영어로 활발하게 발표되면서 민족주의 연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였다)을 만나 구체적인 목소리로 나왔던 것이다. 중요한 문제제기였고,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연구 틀이 정교화 되는데도 기여한 연구들이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20여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대중들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국의 위안부>가 한국의 영향력 있는 독자들에게 의해서 “페미니즘 텍스트”로 해석되고, 저자 자신이 효과적으로 여성주의자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여성주의적 실천을 해왔던 한국의 여성주의자들/여성학자들을 모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대중적 오해의 기저에는 ‘여성주의’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과 얕박한 이해가 깔려 있다. 여성주의는 가부장제의 이름으로 남성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보는 단순화된 이해방식, 그리고 실제로 민족주의 담론의 틀에 갇혀 (여성주의자들이 공동체 재현한) 피해자 여성들의 다층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행하는 폭력적인 분류에 의한 ‘여성주의자’ 딱지가 여성의 몸을 한 여성주의 연구자들을 ‘여성주의자(혹은 여성학자)’와 기타 다른 연구자들로 나뉘버린다. 민족주의 담론이 실재하는 가부장적 성착취와 폭력을 가리우고, 여성 주체와 그녀들의 경험을 지우고

왜곡한다고 비판한 목소리만 여성학자 혹은 여성주의자, 여성학계의 목소리로 기억하고, 위안부 문제의 기저에 민족, 젠더, 국가, 계급의 상호작용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 역사적 특수성을 밝혀내기 위해 작업해 온 여성 학자들의 작업(정진성, 1994; 1998; 1999; 2001, 여순주 1994; 윤정옥 1997, 심영희, 2000; 양현아, 2001; 2006, 송연옥, 2008 등)은 사회과학계, 사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낸 목소리로 위치지워 버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가 “남성중심적 일본제국주의와 함께 가부장적 남한국가 사회를 응시하는(양현아, 2006: 161)”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의 시각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가고 있다는 현실은 무시되어버린다. 이것이 현재, “한국 여성주의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대중들이 상상하는 그 무엇인가를 구성하고 있다.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소녀상, 그리고 왜곡된 민족주의 담론 : <제국의 위안부> 비판

<제국의 위안부> 사태가 있고 나서, 이 책이 (보편적)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보면서 이 책을 페미니즘적,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기존의 (민족주의적) 통념을 깬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제국의 위안부>는 전혀 페미니즘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의 대중적 반응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이제 1990년대의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 담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해되던 방식, 그리고 이후 20여년이 넘도록 진행된 운동과 연구의 과정에서 축적된 한국 여성주의 학계의 성취에 대해 “역사화” 할 때가 된 것인가.

1) 왜 ‘소녀상’을 문제 삼는가

<제국의 위안부> 필자는 한국의 민족주의 때문에 ‘소녀’가 아니었던 위안부의 존재가 묻히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여성을 이분화하고(good girl/bad girl), 성매매 여성을 혐오하는 순결, 정조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내가 이 책에서 말하려 했던 건, ‘소녀’ 이미지를 놓지 않으려 했던 이들과, ‘매춘부’라고만 주장해 온 이들이 똑같이 성이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금기와 차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래도록 당사자들이 어두운 곳에서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다.....(제 2판 서문 iii)”

그렇다면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민족주의와 ‘가부장적 순결/정절 이데올로기(respectable한 여성은 정조를 지킨다/성욕이 없다/매춘부가 아니다)’의 관계는 어떠한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 제대로 된 페미니즘적 논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것은 오직 “(순결한)소녀” 이미지가 일본에 대한 분노를 더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지원세력(과 소수 연구자들)’에 의해 유포되었다는 주장뿐이다. 저자는 ‘평균적인’ 위안부는 소녀가 아니었다고 하다가, 자기는 소녀가 아닌 ‘다른’ 위안부도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단일화 된 위안부의 모습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것뿐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결국은 “강제로 끌려간 20만 명의 소녀”라는 인식이 “예외적인 사례의 일반화된 수용” 때문인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본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소녀’ 이미지가 일본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본인의 논리에 따르면, ‘소녀’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애써 전달하는 필자의 논지는 결국 일본에 대한 분노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2)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사실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복잡하고 정교한 이론적 역사가 있다.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현재의 지식에는 페미니스트들의 연구가 매우 많은 끼쳤다. 여성은 종족 집단 구성원의 생물학적 생산자로서, 또한 종족적 민족적 집단의 경계를 재생산하는 존재로서,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핵심참여자로서, 그리고 그 문화의 전달자로서 ‘민족주의’ 그 자체를 구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민족주의에서는 여성이 종족적 민족적 차이의 기표로 활용되기도 하며(무슬림계의 ‘히잡’, 근대 한국에서 남성의 예복은 양복, 여성의 예복은 한복이었던 것 등 상기), 민족의 정치 경제 군사적 투쟁의 참여자 혹은 주체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띤다. 그렇기 때문에 신시아 인로는, “민족주의적 페미니스트로 사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정치적 과제 중의 하나(1989)” 라고 말한 바 있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적 공동체”로서의 민족, 그러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담론으로서의 민족주의가 서구 유럽의 근대 민족국가 수립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면,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에서의 민족주의 문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 근대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구원해야 할 희생자로서, 그리고 보호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정의 중심으로 형상화된다. 시린 M. 라이는 이것이 “식민주의의 맥락에서 처음에는 식민 지배자에 의해 그 이후에는 식민화된 엘리트 남성에게 의해 형성되었고, 이는 그들의 남성적인 자부심이나 굴욕감에 기반하고 있었다” 라고 말한다(라이, 2014: 39).

피식민지 남성들에게, 식민 지배자들의 희생자로서의 ‘우리 민족’ 여성이라는 존재는 이중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남자’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열패감과, 나쁜 ‘식민 지배자들’에 대한 분노가 그것이다. 한 남성을 모욕하기 위해 그에게 속한 여성을 (성적으로) 범하는 일이 가부장제 하에서 일상적이었던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과거와 현재의 인식들은 바로 그런 문화 속에서 주조되었다.

사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인식을 침윤하는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나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유포된 것이라기보다는, 운동이나 연구자들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깨지 못한 한국의 왜곡된 ‘민족주의’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 일본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의 군사독재정권이었던 노태우였다는 사실은 숙고할 만 한 점이 있다. “식민지배국이 저지른 과거 행위를 적시하고 윤리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스스로의 위치를 높이고자 함(이나영, 2010:53)” 이었다고 할 때, 이는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한 집권세력이 도덕적 우월성을 주장함으로써 통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민족주의적 전유를 활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제국의 위안부>와 이후 일련의 사태는 한국에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본다. 탈식민의 과정이 여러 가지로 왜곡되었던 관계로, 민족주의 엘리트가 아니라 반민족 세력이 ‘민족주의’를 휘둘러 지배해 왔다고 할 수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민족주의”가 왜곡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어떤 성찰도 용납하지 않는 혼몽의 무의식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제국의 위안부>의 필자는 바로 이 무의식의 영역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나는 민족주의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제국주의가 이데올로기가 아니듯이). 문제는 민족주의가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린 지금/여기의 상황이고, 이에 대해 특히 ‘남성’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순결/정조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의 관계

위안부 문제에 작동하는 순결/정절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성이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금기와 차별의식” 수준을 넘어선다. 남성들은, 쉽게 민족 속은 국민국가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민족국가 단위의 경쟁을 가부장적 무의식 속에서 전유한다. (반미운동의 국면에서, ‘미국 여자들을 강간하자’가 구호가 되어버리는 상황.) 민족국가 이데올로기 속에 있는 ‘우리’들은, 민족국가와 개별 구성원을 혼동하고, 상대 민족국가 그 자체를 그 공동체 안의 남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그 공동체 안의 여성들을 (성적으로) 범하는 상상을 한다. ⇒ 이것이 전쟁 중 성폭력의 이유. (남성성의 확인. IS ‘전사에게 여자를 상으로 준다’)

이 책의 필자는 일본군 ‘위안부’와 위안소가 “군인에게 빼앗긴 일상을 대체해서 제공하기 위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 병사의 남성성을 확인해 주고, 병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4) ‘위안부’와 가라유키상, 본토 밖으로 나가서 매춘업에 종사했던 일본 여성의 의도적 혼동

공창제도와 전쟁 중 위안소의 관계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선 오랜 공창제의 역사(‘국가가 관리하는 매춘’)가 있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점령국 군대 점령지의 공창을 접수해서 군인용 위안소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업자와 군대, 그리고 업자-(매춘)여성의 관계는 이 책의 필자가 묘사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본군이 태평양전쟁에서 진주한 점령지에는 기본적으로 유럽식 ‘공창제’의 역사가 없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점령지에서 공창을 접수하거나, 급하게 그 부대가 필요를 위해 개별적으로 여성들을 동원한 경우는 있었더라도, 이렇게 조직적인 위안소 운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제국의 위안부>의 문장들은 주어가 없다 : 위치성(positionality) 문제의 완전한 무시

“.... 이 20년은 그중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취사선택해서 들어왔고 그에 바탕해 위안부에 관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온 세월이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의 ‘위안부’는 그저 가녀린 ‘소녀’가 아니면 노구를 이끌고 투쟁하는 ‘투사’일 뿐이다. 그러나 그건 실은 그녀들 자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위안부’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책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폭력적으로 소거시켜온 그녀들의 기억들을 다시 만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6쪽).”

그렇다면, 취사선택의 주체는 누구이며, 들어온 주체는 누구이며, 기억을 만들어 온 주체는 누구인가. 이어지는 문장에서 갑자기 그런 저런 위안부의 모습을 원했다고 하는 ‘우리’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우리’는 누구인가. <제국의 위안부> 저자는 스스로 지워진 그녀들의 기억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참칭한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본인을 ‘조선인 위안부’의 경험을 투명하게 재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아버린다. 이렇게 위치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는 것은 기실 여성주의 혹은 페미니즘에 정 반대되는 일이다. 페미니즘은 주체가 맥락 속에 놓인 위치에 따라 경험과 입장이 달라진다는 점에 대한 인정을 기본 출발점으로 하기 때문에, 주체의 위치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6) 빈곤(계급), 민족(식민주의), 젠더의 세 억압체계를 단순 나열 혹은 왜곡

이 책에서 <제국의 위안부>라는 제목은 피식민국 여성으로서의 조선인 위안부의 특수성을 지워버리는 장치로 기능한다. “제국의 일부였으므로 ‘애국심’을 가졌을 수 있다”라든가, 군인과 ‘동지’였을 수 있다고 주장해 버리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군인만큼 희생했으니 ‘위안부’들에게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일본인 기자

센다의 주장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하다. 센다의 주장은 일종의 국민으로서의 자격부여(entitlement), 시민권의 인정 문제와 연결되어 있지만, <제국의 위안부>는 제국과 피식민지인의 관계에 대한 그 어떤 숙고도 없이 당시 여성의 내면에 대한 현재의 선부른 추론에 기댄 뿐이다.

그 뿐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도 눈에 띄는데, 가령 다음과 같은 진술이다. 마치 계급, 민족, 젠더의 세 범주의 교차를 논하는 듯하지만, 기실은 젠더는 고정시키고, 민족은 무화하며, 계급의 문제로 환원하는 진술이다.

“일본인 위안부들은 대개 도회지의 좋은 시설에서 장교들을 중심으로 상대하며 상대적으로 편한 환경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의 결정적인 차이였다. 그리고 그렇게 조선인 위안부들이 더 많이가혹한 환경으로 가게 된 이유는, 그들이 식민지의 여성이라는 계급적이고 민족적인 이중차별의 결과로 일본 여성들보다 가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161쪽)”

7) 일본군‘ 위안부’ 연구에서 교차성 패러다임의 필요성

“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오늘날 페미니즘 이론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혹은 이론적 개념인데, 오늘날 대다수의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젠더/섹스를 반드시 교차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범주 혹은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다(Lykke, 2010: 50). 여성억압이 젠더나 섹스 뿐 아니라 계급, 섹슈얼리티, 연령, 장애여부(dis/ability), 인종, 종족성(ethnicity), 민족/국적(nationality) 등 다른 사회문화적인 ‘구성하는’ 범주들의 교차(intersection)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역동적 변화와 차이와 이질성에 대하여 열려 있는 그 무엇으로 이해하는 것.

교차성 이론 혹은 교차성 분석이란, 사람들이 겪는 여성억압 혹은 성차별의 경험이란 것이 젠더/섹스라는 이분법적 범주만으로 제대로 분석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나아가 젠더/섹스 뿐 아니라 어떤 사회적 범주라도 그것 하나만이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순수한 효과를 생산하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교차성 이론은 여성억압을 구성하는 요인에 젠더/섹스 이외의 다른 범주들을 단순히 첨가하는 소극적인 다원주의적 분석보다 더 나아가갈 것을 요구한다. 가령, 하층계급 여성들이 겪는 억압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들이 여성이기 때문인지 가난하기 때문인지 혹은 둘 중 무엇이 두 중요한지를 따지는 것이 초기 2물결 페미니즘적인 접근이라면, 이들의 경험에 젠더와 계급이 상호작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소극적인 다원주의이다. 교차성 분석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젠더와 계급 뿐 아니라 여타의 사회적 범주들이 중첩적으로 작동하면서 해당 여성 집단의 삶을 제약한다고 보면서 그러한 중첩적 억압 구조를 교차적 현실 그 자체로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패트리샤 힐 콜린스가 지적했듯이, “억압의 문화적 패턴들은 단지 상호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종, 젠더, 계급, 그리고 민족과 같은 사회의 교차적 체계들을 통해 함께 묶이고 서로 영향을 받는다(Collins, 2000: 42).” 그러기에 우리가 분석해야 할 것은 맞물려 작동하는 억압(interlocking oppression) 그 자체인 것이다(Collins, 1990[2009]: 34).“

5. 다시 한 번, 여성의 경험을 역사화하기

역사에 실재했던 여성들의 존재와 그녀들의 경험이 지워지고 왜곡되는 일은 비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소거와 왜곡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부당한 민족주의(일본을 적대시하는)와 ‘성이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금기와 차별의식’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학문과 역사와 집합적 기억의 생산방식 안에 이미 녹아들어가 있는

남성중심성(젠더문제, 가부장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지식으로, 담론으로 재현되지 않는 수많은 여성의 행위성과 경험들을 우리는 어떻게 역사화 할 것인가.

역사가 하나가 아니다, 혹은 역사 안에 재현되는 주체가 하나가 아니다 라는 주장은, 즉 역사의 다층성과 다양성, 갱신가능성에 대한 주장과 이해는, 어떤 의미에서 여성주의의 기본이다. 남성 중심의 역사, 공적 제도의 역사(특히 민족국가의 역사, 정치사)에 반기를 들고, 생활사, 사회사, 일상사, 미시사, 구술사, 문화사와 더불어 여성의 역사를 쓰는 방법론을 발전시켜 왔던 여성주의는,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 민족, 정치, 종교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인정하는 역사쓰기를 고민하고 있다. “여성의 경험”이 결코 단일하거나 하나의 정체성 혹은 공통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인 이미 상식인 것이다.

국가가 ‘하나의 역사’를 강요하고, 현대사가 정치에 동원되고, 고대사가 국민국가들 사이 혹은 사회세력들 사이의 쟁투 꺼리가 되고 있는 이때에, 다양한 여성들의 위치성과 차이들, 맥락을 고려한 역사쓰기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성주의 역사가에게 차이를 “우연적이고 변이하는 특수한 역사의 산물로서 분석”할 것을 요청한 조운스콧의 문제제기는, 현재의 ‘우리’ 여성주의자들에게 어떤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인가.

90년대 기억 상품의 포스트 페미니즘 정치학 : tvN <응답하라> 시리즈를 중심으로

김현경
(광운대학교)

1. 들어가며

2010년대 이후 소위 ‘복고풍’ 문화콘텐츠는 그 회고의 대상이 되는 시기를 1960~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이동시켰다. 1990년대에 대한 회고적 정서는 2011년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서 그간 텔레비전에서 보기 어려웠던 1990년대 인기 가수들이 대거 등장하여 화제가 된 이후로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 드라마 <신사의 품격>, <응답하라 1997>, 2013년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잇따른 성공으로 대중문화의 확실한 유행이 되었으며,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는 시기 방영된 <무한도전 토토가>,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응답하라 1988>로 정점을 찍었다. 또한 이 드라마의 인기는 우리가 회고하는 ‘1990년대’가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1997년 IMF 위기로 막을 내린 ‘장기 1990년대’ (주은우, 2010)임을 일깨워주었다.

대중예술사의 흐름에서 이런 복고 현상은 반복되며, 보통 ‘나이 마흔’에 이른 세대의

청(소)년기가 복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영미, 2014)에서 지금의 ‘90년대 붐’은 그 자체로 특별한 현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복고의 정서를 이루는 구체적인 내용일 것이다. 몇몇 선행연구들은 복고적 회고의 대상이 되는 1990년대가 실은 선택된 일부라는 점을 강조한다(김숙현 외, 2013; 박노현, 2013; 권은선, 2014; 백소연, 2014; 서동진, 2014). 이들 문화콘텐츠에서 1990년대는 정치적 의미가 거세된 대중문화,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키는 소비상품, 구체적 내용이 삭제된 첫사랑의 시기로 재현된다. 반면, 민주화 이후 합법의 공간에서 사회적 저항을 이어간 여러 운동들, IMF 위기 등의 사회적 사건들은 후경화 된다. 김숙현 외(2013)는 <응답하라 1997>을 중심으로 이러한 재현이 자아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백소연 또한 이와 비슷하게 <응답하라 1994>를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쉽지 않은 시절을 버텨 오늘까지 잘 살아남은’ 이들의 ‘자기 위로’ (백소연, 2014:63)가 이 회고 정서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라고 분석한다. 권은선은 이러한 정서가 ‘자기 계발’로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콘텐츠들의 용도는 과거의 순수했던 나를 떠올려 현재의 자기를 계발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다(권은선, 2014).

한편 1990년대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문화 콘텐츠를 ‘기억 상품’으로 명명하면서 대중문화의 기억 산업과 세대 담론의 교차에 주목하는 연구(이화진, 2014)도 있다. 이화진에 따르면, 기억과 정보, 상품이 뒤섞인 형태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억 산업’의 자장 안에 놓인 ‘기억 상품’으로서의 이들 문화 콘텐츠들은 90년대 당대에 ‘X세대’, ‘신세대’, ‘N세대’ 등 다양하게 명명되었지만 결국은 ‘아무런 이름도 남지 않은 세대’의 자기 서사화 기획이다. 이화진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4>와 <나인>을 대비시켜 읽으면서 이 기획이 기억 상품의 구매라는 방향으로만 확산된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텍스트들은 현재의 기억하려는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과거 - ‘90년대’를 재현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리라’는 진보로의 직선적인 지향성을 넘어서 지금과 다른 어떤 시간의 공간화를 통해 머무름과 지속성, 그리고 성찰의 자리를 마련하는’ (이화진, 2014: 96)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기억 상품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그에 갇히지 않는 다양한 기억들의 생산과 그것들 간의 경합이 보다 생산적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일 터이다. 이 글은 <응답하라> 시리즈의 젠더/섹슈얼리티 재현과 포스트 페미니즘 정치학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에 기여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드라마 시리즈가 제시하는 여성됨과 남성됨의 구성 과정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남녀 인물 재현 양상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1990년대 페미니즘 정치학과 맺는 관련 속에서 더욱 성찰적으로 규명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이 글의 목적은 1990년대에 대한 다른 기억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90년대 기억 상품인 <응답하라> 시리즈의 정치학을 분석, 비판하고, 이를 통해 90년대 세대의 자기 서사화 기획과 현재의 페미니즘 정치학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2. 1990년대 문화로의 전환과 페미니즘 그리고 포스트페미니즘

<응답하라> 시리즈를 위시한 90년대 기억 상품은 주로 이 시대를 한국 대중문화의 시원이자 소비문화의 출발로 재현한다. ‘장기 1990년대’의 시각에서 1987년 6월 항쟁과 그 효과로서의 90년대는 소비 자본주의와 대중문화의 형태로만 그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마찬가지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터져 나온 민주화와 자유화의 열망이 다종다양한 집합적 운동으로 그 끝을 갖추어 갈 때 새로운 시각으로 부상한 페미니즘은 이 기억 상품들에서 소비,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젊은 여성 인물의 표면적인 성격으로만 그 흔적을 엿볼 수 있을 따름이다. 필자는 이러한 재현을 페미니즘에 대한 해석, 태도, 주석, 개입이라는 의미에서 ‘포스트페미니즘’이라는 용어로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

‘페미니즘 이후’를 뜻하는 포스트페미니즘은 페미니즘과의 긴장 속에서 등장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와 그에 내재한 정치학을 뜻한다. 서구에서는 참정권 운동이 성과를 거둔 직후부터 이 용어가 쓰였다.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참정권이 획득되었으니 이제 페미니즘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페미니스트들 스스로 자신들을

‘포스트페미니스트’라고 불렀다는 것이다(조선정, 2015; 51).

그렇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반(anti) 페미니즘’ 정서로서의 포스트페미니즘은 페미니즘 제 2차 물결 이후 그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한 일련의 정치적 기획이다. 팔루디(Susan Faludi)는 198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반 페미니즘’ 담론을 1960, 70년대 페미니즘의 성취에 대한 대중적 반응으로 분석한다. 낙태권을 중심으로 한 몸의 자율권 획득과 노동 시장에의 진출이라는 페미니즘의 성과는 70년대 말부터 가시화된 자본의 이윤율 하락과 뒤이은 신자유주의 세력 집권으로 ‘역풍(backlash)’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페미니즘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었고, 반(anti) 페미니즘이 페미니즘 이후 즉, 포스트페미니즘의 주요한 정서가 되었다는 것이다(Faludi, 1991). 뒤이어 맥로비(Angela McRobbie)는 1990년대 포스트페미니즘은 단순히 반(anti) 페미니즘적이지 않고 오히려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참조한다고 본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참조는 페미니즘의 성취를 훼손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역사화, 세대화 된 페미니즘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손쉽게 무시할 수 있다. 예컨대 모델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감탄하듯 바라보는 윈터브라 광고는 시선의 대상으로서의 여성과 여성의 욕망에 관한 페미니즘 이론 논쟁을 참조하며 보여주는 동시에 ‘도발적으로 성차별주의를 상연’ 함으로써 페미니즘을 과거의 것으로 만드는 예이다(McRobbie, 2009).

이처럼 ‘사라지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페미니즘 위치 구성으로서의 포스트페미니즘은 미디어의 페미니즘 재현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1990년대 영미권 페미니즘의 담론 지형을 포스트페미니즘의 맥락에서 살핀 조선정에 따르면 ‘페미니즘이 지속적으로 미디어의 호명을 받을수록...포스트페미니즘이 구현’되며, 이렇게 될수록 현실의 여성과 미디어가 재현하는 여성이 자연스럽게 호환되면서 현실의 여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다(조선정, 2015; 55-56).

물론 식민지배, 내전, 분단, 군사독재라는 역사적 맥락상 한국 페미니즘의 전개는 서구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제약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1970년대부터 특정한 방식으로의 지식생산체도로 진입한 한국 페미니즘은 다른 여타의 사상/운동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말 이후 체계적인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공적 영역의 민주화가 달성된 것으로 보인 그 때, 한국의 페미니즘은 사적 영역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민주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해방 이후 50여년간 지속되어 온 ‘호주제 폐지 운동’의 확장(양현아, 2012), 1980년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어지는 ‘반성폭력 운동’의 단절적 확대(신상숙, 2007, 2008; 김보명, 2008), 대학 내 여성주의와 성적 소수자 운동의 등장(달과입술, 2000; 권김현영, 2001; 전희경, 2008; 정연보, 2015)은 이 시기에 대한 소묘에서 빠질 수 없는 풍경들이다. 그렇기에 직접 연루되었든 되지 않았든 1990년대라는 시대의 중요한 한 축이 페미니즘과 성정치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시대적 맥락에서 1990년대를 페미니즘의 시대로 기억할 때 유의할 점은 이 시기 온라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페미니즘의 메시지 확산과 주류 미디어를 통한 반페미니즘 정서의 운반, 페미니즘 내부에서의 포스트페미니즘 정치학 개진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시대의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부상하기 시작한 젊은 여성들에 대한 기대와 불안 섞인 미디어 재현은 이 시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영페미니즘’ 운동과 성정치 담론은 전 세대의 페미니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담론적 전략 그 자체이기도 했다(정연보, 2015). 독자적인 여성운동 세력화와 운동기반으로서의 ‘여성 정체성’에 대한 강조, 이에 대한 반페미니즘적 정서, 여성들 내부의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차를 두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함께 펼쳐졌다. 이는 서구에 비해 보다 압축적으로 근대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특정한 페미니즘 ‘이후’를 주장한 포스트 페미니즘적 문제제기는 어디까지나 페미니즘 내부에서의 문제제기였다(김신현경·정현백, 2004).

한편 1990년대 사회를 보는 시각의 전환 즉, 정치투쟁으로부터 대중의 일상으로, 이념으로부터 경험으로, 과학으로부터 문화로의 전환(김예란, 2007)이 페미니즘/성정치 담론이 해계모니를 갖는 과정과 교차하고 겹쳐지며 서로를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페미니즘 내 문화 논의는 1990년대에 이르러 젠더화 된 섹슈얼리티(gendered sexuality)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는 장소로서의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성차의 구성과 섹슈얼리티가 맺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논쟁과 교차, 확대되었다(서동진, 1996; 김은실, 2001; 김현경, 2010). 당시 대학가에서 성정치의 인기는 문화연구에 대한 열기와 맞물려 수용되었다. 이는 아카데미 내 논의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 공간의 형성과 관련을 맺는다. 김예란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 및 문화화 과정과 맞물려 형성된 문화 공간을 ‘문화관’이라는 개념으로 명명하는데, 이곳에서 인생의 이 행기를 보낸 청(소)년 집단은 미래 문화 생산자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한다. 많은 청년들에게 문화는 단지 소비의 영역이 아니라 미래 노동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김예란, 2007). 필자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현재 90년대 기억 상품의 생산자로서 대중문화 영역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사실은 90년대 기억 상품들의 세대 서사에 드러나는 젠더/섹슈얼리티 재현을 1990년대 페미니즘과 성정치 담론과의 관계 내에서 보다 성찰적으로 분석할 필요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3. 딸들의 정치학을 딸들의 가족주의로 바꿔 쓰기

그간 <응답하라> 시리즈에 대한 선행연구의 핵심논지는 앞서 살펴본 대로 ‘ 좋았던 시절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갖는 보수적 정서에 관한 비판으로 수렴된다. 그렇지만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정말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복고 정서가 언뜻 전형적이지 않아 보이는 여성 인물들 그리고 남녀관계의 재현과 결합하여 제시된다는 사실이다. 흔히 노스탤지어가 재현하는 ‘ 좋았던 시절’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질서는 근대의 성별분업에 맞추어져 들어맞는다. 노스탤지어란 지금의 혼란과 복잡함에 견주어 볼 때 모든 것이 ‘ 명확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응답하라> 시리즈의 표면적인 주인공은 ‘ 빠순이’ 혹은 ‘ 둘째 딸’로서, 그녀들의 성격과 에너지는 발랄함을 넘어서 과격함에 이른다. ‘ 팬심’은 그녀들의 여성성을 넘어서는 과격한 에너지의 주요한 이유다. <응답하라 1997>(이하 <응칠>)의 시원은 HOT 그 중에서도 멤버 토니의 열렬한 팬이며,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의 나정은 농구선수 이상민, 도희는 서태지와아이들의 리더 서태지에게 열중하는데, 이들의 ‘ 팬심’은 90년대를 넘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2010년대 현재까지 열정적으로 지속된다. 이에 대해 김숙현 외(2013)는 <응칠> 분석에서 저열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90년대 소녀 문화가 재서사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보편적인 것으로 제시되는 소년 문화와 달리 특정 시대에 한정되는 문화로 재현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실 10대 여성 팬덤은 페미니즘 문화연구가 소비대중문화 시대 젊은 여성들의 새로운 주체화 가능성이라는 주제와 연관 지어 가장 열정적으로 다룬 현상 중 하나이다. 가부장제 하의 여성들이 억눌린 성적 억압을 안전하게 분출할 수 있는 지대로서의 대중문화는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소비 자본주의에서 찬란한 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입시 스트레스와 성적 억압을 동시에 경험하는 한국의 10대 그 중에서도 소녀들이 뽐내려는 이와 같은 열기는 그 자체로 여성들의 행위성(agency)과 성적 주체성을 증거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소녀들의 집단적 열기는 애정의 대상이 자리한 대중문화에 대한 개입과 사회운동으로 성장하기도 했다(김이승현·박정애, 2001). 이 시리즈는 10대 여성 팬덤의 시대적인 세부 사항을 마치 오래된 고물상에 놓인 골동품들처럼 꼼꼼하게 열거한다. 그러나 이 열정이 어떠한 맥락에서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들을 입체적인 개인으로 이해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 한다. 10대의 한때, 이해되지 않는 과격한 에너지는 그녀를 좋아하는 남자의 자상함을 부각시키는 용도로 배치된다(<응칠>에서 시원을 좋아하는 윤제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녀와 함께 HOT 콘서트 전날 콘서트장에서 밤을 새고 <응사>에서 도희를 좋아하는 삼천포는 역시 이해되지 않지만 서태지와아이들의 콘서트에 그녀와 함께 간다). 그렇다면 문제는 10대 여성 팬덤이 90년대에 한정되는 문화로 재현되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성적 욕구와 에너지를 남성과의 제도적 관계가 아닌, 대중문화라는 장에서 표출하며 새로운 주체로의

사회화 과정을 예고한 당시 젊은 여성들의 주체성, 이에 대한 페미니즘 분석과 정치학의 개진에 대한 명백한 주석이다. 그것은 사실 여성들의 주체성이라기보다 남성들의 배려였다는 것이다. 그녀들의 팬덤은 더 이상 저열하게 그려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 주체 변화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대적 징표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그저 그 시대의 편린을 웃으며 돌아볼 수 있는 개그적 요소에 그칠 뿐이다.

더 이상 ‘빠순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 <응답하라 1988>에서는 ‘서울대 운동권 여대생’과 ‘둘째딸’이라는 위치가 보라와 덕선의 과격한 에너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동네에서 공부를 제일 잘 해 서울대를 간 보라는 언뜻 봤을 때 당시 첫째딸들이 체화한 미덕인 순종과 희생의 이미지와는 영 거리가 있는 인물이다. 가족 모두가 눈치를 볼 정도로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이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동에 투신하며, 자신을 통제하려는 남자친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고 소리치는 보라는, 가족 내 딸이라는 위치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으려는 민주화 시대의 새로운 여성 주체이다. 보라와는 모든 것이 반대인 덕선 또한 가족 내 ‘둘째딸’이라는 위치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쉽게 수긍하지 않고 울며 소리친다. 말하자면 그녀들은 1987년 이후 가족 내 존재로 한정되는 여성의 위치에 대한 한국 페미니즘의 문제제기를 온몸으로 구체화한 젊은 여성들의 형상이다. 이는 80년대 말 90년대 초 학생운동 내 젠더화 된 일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이재원, 1998; 이후 편집부, 1998; 전희경 2008)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내 독자적인 여성운동세력의 ‘영(young)’, ‘딸’과 같은 단어를 재의미화 하는 시도로 이어졌다. 정연보는 90년대 영페미니스트 그룹 중 하나였던 <달나라딸세포> 분석에서 기존 여성운동이 기반하고 있던 모성 주체에 대해 ‘딸’로서의 여성 위치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위치한 다양한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의 시각이었다고 설명한다(정연보, 2015). 그러나 앞선 <응칠>과 <응사>에서 개그적 요소이자 남성들의 배려와 연결된 ‘빠순이성’과 마찬가지로 보라와 덕선의 ‘어린 여자’, ‘딸’에 한정되지 않고자 하는 의지는 뜬금없이 웃음을 유발하거나 남성과의 관계에서 해소되는 일시적인 것으로 재현된다. 학생운동 내 젠더화 된 일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보라의 시답잖은 첫 연애에서 그 흔적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며, 그녀들의 갈등은 아버지의 딸로서 가족 내에서 봉합된다.

이런 면에서 <응답하라> 시리즈 전체에 걸쳐 부모로 등장하고 있는 성동일과 이일화의 존재는 의미심장하다. 이 시리즈의 주요 여성인물들은 모두 그들의 ‘딸’로 등장한다. 본명을 극중 인물명 그대로 사용하는 이들은 배우로서의 실제 분위기와 허구의 인물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하며 90년대의 아버지, 어머니 상을 구현한다. ‘말투는 억세지만 남을 거뒀 먹이는데 인색함이 없는’ 어머니와 ‘겉으로는 통통거리지만 실은 따뜻하고 다정한’ 아버지는 90년대라는 환타지적 공동체의 절정이다. 심지어 아버지 성동일들은 극중에서 만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장치는 <응답하라> 시리즈의 젊은 여성 주인공들이 다른 무엇보다 이 아버지의 딸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화한다. 물론 그녀들은 알고 보니 모두 어머니 이일화를 닮았고, 아버지 성동일을 닮은 남자와 결혼한다. 그리하여 그녀들은 개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영원히 갖지 못한다. <응팔>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 한 언론은 이를 ‘가족이나 다름없는 관계를 통해 인물과 인물 사이의 거리를 지운 <응답하라>의 세계에서 연애는 서로 다른 두 주체가 함께 하는 법을 모색하는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이상적으로 보이는 이 공동체가 사실은 서로의 거리를 극도로 좁힌 채 개인의 영역을 지워버린 세계라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한다(위근우, 2015). ‘딸’로서 존재하는 ‘젊은 여성’의 위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위치를 다른 방식의 운동의 기반으로 삼았던 당대 페미니즘의 시도는 이렇게 회화화된다.

동성애자인 등장인물들 또한 명백히 1990년대 성정치의 영향을 환기시킨다. 게다가 1990년대 중반 연세대라는 시공간은 이 인물들을 야오이 장르물의 관습적 재현만으로 볼 수 없게 하는 당대의 맥락을 구현한다. 무엇보다 선배 형에게 애정을 느끼는 빙그레라는 인물의 남성적이지 않은 성격과 형상은 전형적이기보다 구체적이다. 그의 욕망은 의사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과 겹쳐있다. 그가 예술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게 되는 과정은 동성애에 대한 애정을 거두고 여성에게 ‘욕정을 느낄 수 있는지’ 확인 키스를 하는 상황으로 수렴된다. 2013년 그는 부부 의사로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한

대가'로 품 나게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성애 가족에 포섭되지 않는 개인됨 그리고 개인들의 관계맺음에 관한 성찰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성소수자 정치는 정확히 반대에 위치한다. 내레이션은 가족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자들, 다소 비현실적인 꿈을 좇으며 품 나게는 살 수 없는 자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꿀릴 것 없다고 비장하게 말한다. 이를 가리켜 백소연은 '살아남은 자들의 자기 위로'라고 분석하는데, 필자는 여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자기 콤플렉스'를 함께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는 다르게 <응칠>의 준희는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카메라는 다른 등장인물들이 현재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시시콜콜 보여주지만 그의 현재 삶은 썬팅 된 자동차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리는 것으로 처리한다. 그의 현재 삶은 성시원의 '좋은 게이 친구'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이 시리즈는 1990년대 페미니즘과 성정치가 제기한 많은 테마들을 그리면서 동시에 개인이 되지 못 한 이들의 이성애 연애와 결혼, 가족의 확장을 인생의 해법으로 제시한다. 변한 것은 딸들이 전시대의 어머니와 다르게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돈을 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직 여성도 흡연사실은 남편에게 숨겨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된다고 제시하는 드라마에서 개인이 된 여성은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그녀들의 경제력은 가족을 위한 것이지 그녀들의 것이 아니다. 가족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그것이야말로 IMF 경제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이었으며, 심지어 '마지막 사랑' 이리니. 2010년대의 포스트페미니즘 정치학은 이처럼 IMF라는 외상적 사건을 통과한 이후 더욱 강화된 가족주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4. '예능 드라마'로 90년대를 기억하기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응답하라> 시리즈가 90년대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기 위해 채택한 형식이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그간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발전시켜온 서사 구조와는 다른 구조를 보여준다. 이를테면 작품의 주요 재료인 '소재', 작품이 내세우는 중심적인 의미로서의 '주제', 6화 원칙에 의거한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의 구체적 조직을 의미하는 '플롯'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구성력'이 텔레비전 드라마의 기본이라고 할 때, <응답하라 시리즈>에는 이 모든 것이 부재한다. 이보다 이 시리즈를 채우는 것은 바로 '캐릭터'다. 전통적인 텔레비전 드라마가 소재와 주제, 이야기, 플롯, 구성력을 재현하는 것으로서 '등장인물'이 중요하다면, 이 시리즈에서는 이 모든 것의 결여를 아이돌 혹은 리얼리티 쇼 우승자로서의 이미지(<응답하라 1997> 정은지, 서인국, 호야, 은지원, <응답하라 1994> 손호준, 도희, 고아라, <응답하라 1988> 해리), 눈길을 사로잡는 그러나 소재와 주제, 이야기, 플롯과는 별 상관이 없는 개인기(<응답하라 1997> 방성재, 전 시준 출연한 성동일, <응답하라 1988> 라미란) 등 출연자의 '캐릭터'를 통해 해결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라는 '설정'이 주어진 다채로운 캐릭터들의 쇼와 같은 것이다. 이 시리즈의 전매특허와 같은 사투리 사용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캐릭터 쇼의 일부로 전락한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이와 같은 특징은 보통 '예능 작가, PD들의 참신한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좀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한다.

1970년대 세계 공황 이후, 이윤율을 높이기 위한 자본의 도주는 지역적 범위의 계급 관계 구축 및 소비 실현을 위한 다국적 기업들을 등장시켰고, 1980년대 이후에는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회계, 광고, 경영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성장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1987년 광고 시장을 개방했는데,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광고모델로 데뷔 후 그 이미지에 기반 해 스타 배우로 자리 잡는 사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 시기에 등장한 에이전트 성격의 매니저는 배우를 '이미지 상품'으로 구성하는 기획사의 전신으로 볼릴 만하다. 현재 한국 기획사 업계에서 일반화된 무명의 지망생 스카우트, '신인을 스타에 끼워 팔기' 등이 당시 매니저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1980년대 말은 가요 부문에서 한국 최초의 아이돌 '소방차'(<응팔>의 그 소방차!)가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바로 이 시기부터 음반 기획만 담당하던 음반사는 음반 제작을

포함해 가수들의 매니지먼트를 포함하는 연예기획사로 변모하고, 이로부터 이후 케이팝(K-pop)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는 아이돌 팝의 성장이 이루어졌다(이동연, 2014).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대기업 자본뿐 아니라 벤처 및 금융자본의 유입으로 기획사들의 양적 팽창이 가속화된다. 이후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로 널리 알려진 SM 엔터테인먼트와 SS501, 카라로 알려진 DSP 미디어의 종합연예기획사로의 변모도 이 때 이루어졌다. 특히 SM 엔터테인먼트가 확립한 아이돌의 활동 경로 즉, ‘오디션-이미지에 부합하는 가수 선발-이미지 메이킹과 연습-음반 제작-공식 데뷔해 방송 활동-팬클럽 창단-대형 콘서트 개최-음반 작업을 위해 활동 중단’은 일본 아이돌 생산 시스템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혼종적 문화 산물(차우진·최지선, 2011)로서 다른 연예기획사들에게도 일종의 모델로 받아들여졌다.

1990년대 벤처 및 금융자본, 2000년대 통신 기업 자본이 유입되면서 많은 기획사들이 기존 상장사와의 결합을 통한 우회상장을 시도했다. 현재 한국의 메이저급 기획사들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이며, 코스닥에 상장한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연기와 노래라는 본업 외 이미지의 상품화를 통해 다양한 부가 상품 및 사업 기획 그리고 주가 상승을 통한 이윤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스타’에의 쏠림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배우의 경우 스타의 영향력 확대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가수의 경우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아이돌 그룹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생산 그리고 유통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아직 이미지가 없는 신인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미디어를 필요로 하는 기획사, 보다 싼 값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자 하는 방송사, 방송사에서 수주를 받아 가격대비 효과가 큰 콘텐츠를 납품하고자 하는 제작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 바로 한국형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 이른바 ‘예능 프로그램’인 것이다. 말하자면 예능 프로그램은 한국 미디어 콘텐츠 유연 생산화의 핵심 고리인 셈이다.

이는 물론 한국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포맷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서구에서도 대본이 없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촬영하여 보여주는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Nabi et al, 2003)이 이미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에는 주로 일반인이 등장하는 데 반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는 신인 연예인이 등장한다. 이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서구의 리얼리티 프로그램보다 텍스트를 창조하는 요인으로서 캐릭터를 창출하는 출연자에게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조준상·은혜정, 2013). 또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가 고정되고 매주 소재와 포맷이 변경되기 때문에 출연자 행동의 패턴과 기억이 연결되어(조준상·은혜정, 2013) 출연자를 특정한 캐릭터로 형성시킨다(장용호·노동렬, 2010). 말하자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별 이미지가 없었던 신인 연예인들은 매주 다른 소재와 포맷에 따라 ‘리얼’을 재현함으로써 이미지를 쌓아나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미지 상품’ (Lukács 2010; Galbraith and Kalin, 2012; 김현경, 2014)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이렇게 형성된 캐릭터 쇼로서의 예능 프로그램의 형식에 90년대를 기억하게 하는 몇 가지 단서들을 엮는다. 그러나 밀도 있는 스토리와 플롯, 구성력을 결여한 드라마가 캐릭터 쇼만으로 흥미를 지속시키기란 쉽지 않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도입된 것이 ‘남편찾기’라는 장치이다. 이는 예능 프로그램의 미션 수행 장치의 드라마적 변형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그리하여 상영 전 눈길을 끄는 요소로 배치되는 여주인공은 과시의 수준에서 활발히 재현될 뿐 극 전반의 긴장감을 책임지는 것은 남성 인물들이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이와 같은 서사와 형식은 한국 미디어 산업의 구조 변동이 불러온 새로운 젠더 분할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간 페미니즘이 변화시키고자 한 현실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완벽한 은유로 보인다. 심지어 이 드라마는 중반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소위 ‘떡밥’을 무수히 깔아놓고, 이를 찾아내는 데 골몰하게 함으로써 문화연구가 ‘수용자의 적극적 해석’으로 의미화 했던 생산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수용 행위까지 콘텐츠 생산에 완벽하게 포함시켰다. 페미니즘과 더불어 1990년대를 대표하는 시각이었던 문화연구 또한 훼손되기 위해서만 참조되고 있는 것이다.

5. 나가며

참고문헌

<1차 자료>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영상 (tvN 2012년 방영)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영상 (tvN 2013년 방영)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영상 (tvN 2015년 방영)

위근우, “<응답하라> 패밀리즘 ③ 정환, 쓰레기, 윤제의 연애하는 법”, MAGAZINE IZE 2015년 12월 15일자.

(<http://www.ize.co.kr/articleView.html?no=2015121310277210997>)

<문헌 자료>

권김현영(2001), “시대의 무게를 벗고 일상의 정치에 나서다 :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 영 페미니스트”, 여성사연구모임 길밖세상(편), 『20세기 여성 사건사 : 근대 여성교육의 시작에서 사이버 페미니즘까지』, 서울: 여성신문사.

권은선(2014),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상품 : 1990년대를 재현하는 향수/복고 영화와 드라마”, 영상예술학회(편), 『영상예술연구』, 25집, 35-55쪽.

김보명(2008), “1990년대 대학 반성폭력 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 (사)한국여성연구소(편), 『페미니즘연구』, 제8권 1호.

김보명(2008), “1990년대 대학 반성폭력 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 한국여성연구소(편), 『페미니즘연구』 제8권 1호, 191-217쪽.

김숙현 외(2013), “<응답하라 1997>에 나타난 정서의 구조와 집합기억”,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편), 『미디어, 젠더 & 문화』, 26호, 5-40쪽.

김신현경·정현백(2004), “시민운동의 현주소를 묻는다 : 여성운동의 세대갈등”, 『창작과비평』, 123호.

김예란(2007),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문화생산 공간과 실천에 관한 연구”, 성곡언론문화재단(편), 『언론과 사회』, 제15권 1호.

김은실(2001),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재현과 대중 문화”,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서울: 또하나의문화.

김이승현·박정애(2001), “빠순이, 오빠부대, 문화운동가? : 서태지 팬덤 이야기”, (사)한국여성연구소(편), 『여성과 사회』, 제13호.

- 김현경(2010), “ ‘ 문화’ 개념과 ‘ 성차’ 관련 개념들에 대한 몇 가지 고찰 : 1990년대 이후 한 국 사회 ‘ 페미니즘 문화연구’ 를 중심으로 ‘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편), 『민족문화 연구』, 제53호.
- 김현경(2014), “ 기획사 중심 연예산업의 젠더/섹슈얼리티 정치학” , 한국여성학회(편), 『한국 여성학』 제 30권 2호.
- 달과입술(2000)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서울: 동녘.
- 박노현(2013), “ 텔레비전 드라마의 ‘ 왕정’ 과 ‘ 복고’ : 미니시리즈의 타임슬립과 복고 선호 양 상을 중심으로”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편), 『한국학연구』, 제30집, 285-323쪽.
- 백소연(2014), “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 1990년대 재현의 양상 : tvN <응답하라 1994>(2013)를 중심으로” , 대중서사학회(편), 『대중서사연구』, 제20권 3호, 41-68쪽.
- 서동진(1996),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 서울: 문예마당.
- 서동진(2014), “ 플래시백의 1990년대 : 반기억의 역사와 이미지” , 영상예술학회(편), 『영상 예술연구』, 25집, 11-34쪽.
- 신상숙(2007), “ 1980~90년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젠더정치 : ‘ 국가폭력’ 과 ‘ 젠더 폭력’ 의 맥락적 구성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사학회(편), 『사회와 역사』, 제76집.
- 신상숙(2008), “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 성폭력 개념사를 통해 본 여성인권의 성정치학” , (사)한국여성연구소(편), 『페미니즘연구』, 제8권 2호.
- 양현아(2012), 『한국 가족법 읽기 :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과주: 창비.
- 이동연(2014), “ 케이팝 제작 시스템의 독점 논리와 문화자본의 형성” , 문화/과학 편집위원회(편), 『누가 문화자본을 지배하는가? - 한국 문화산업의 독점구조』, 서울: 문화과학사.
- 이영미(2014), “ 79학번이 94학번에게 - <응답하라 1994>를 보면서 생각한 것” , 새얼문화 재단(편), 『황해문화』 3월호. 330-337쪽.
- 이재원(1998),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 90년대 학생운동의 성찰과 전망』, 서울: 이후.
- 이화진(2014), “ ‘ 90년대’ 를 돌아보기 : 세대의 기억 상품과 자기 서사” , 대중서사학회(편), 『대중서사연구』, 제20권 3호, 69-100쪽.
- 이후 편집부(1998),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2 : 학생운동의 감추어진 일상문화』, 서울: 이후.
- 장용호·노동렬(2010), “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자기조직화에 관한 연구”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1권 2호.
- 전희경(2008), 『오빠는 필요없다』, 서울: 이매진.
- 정연보(2015), “ ‘ 영페미니스트’ 와 ‘ 여성’ 의 재구성: 웹진 <달나라딸세포>를 통해 본 정체성, 차이, 재현에 대한 고민들” ,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학』 제31권 3호, 31-64쪽.
- 조선정(2014), “ 포스트페미니즘과 그 불만: 영미권 페미니즘 담론에 나타난 세대론과 역사 쓰기” ,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학』 제30권 4호, 47-76쪽.
- 조준상·은혜정(2013), “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연구 : 의사사회 상호작용 요인, 플로우 그리 고 시청만족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언론학회(편), 『언론과학연구』 제13권 3호.
- 주은우(2010), “ 자유와 소비의 시대, 그리고 냉소주의의 시작: 대한민국, 1990년대 일상생활의 조건” , 한국사회사학회(편), 『사회와 역사』, 제88집, 307-344쪽.
- 차우진·최지선(2011), “ 한국 아이돌 그룹의 역사와 계보, 1996~2010년” , 이동연(편), 『아이돌』, 서울: 이매진.
- Faludi, Susan(1991), 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en, New York: Anchor.
- Galbraith, Patrick W. & Karlin, Jason G.(2012), “ Introduction: The Mirror of Idols and Celebrity” , edited by Galbraith, Patrick W. & Karlin, Jason G., Idols and

Celebrity in Japanese Media Culture. London: Palgrave Macmillan.

Lukács, Gabriella(2010), *Scripted Affects, Branded Selves - Television, Subjectivity, and Capitalism in 1990s Japan*,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McRobbie, Angela(2008), *The Aftermath of Feminism - Gender, Culture and Social Change*, SAGE Publications.

Nabi, R, Biely, E., Morgan, S. & Stitt, C.(2003), "Reality-based television programming and the psychology of its appeal", *Media Psychology* 5.